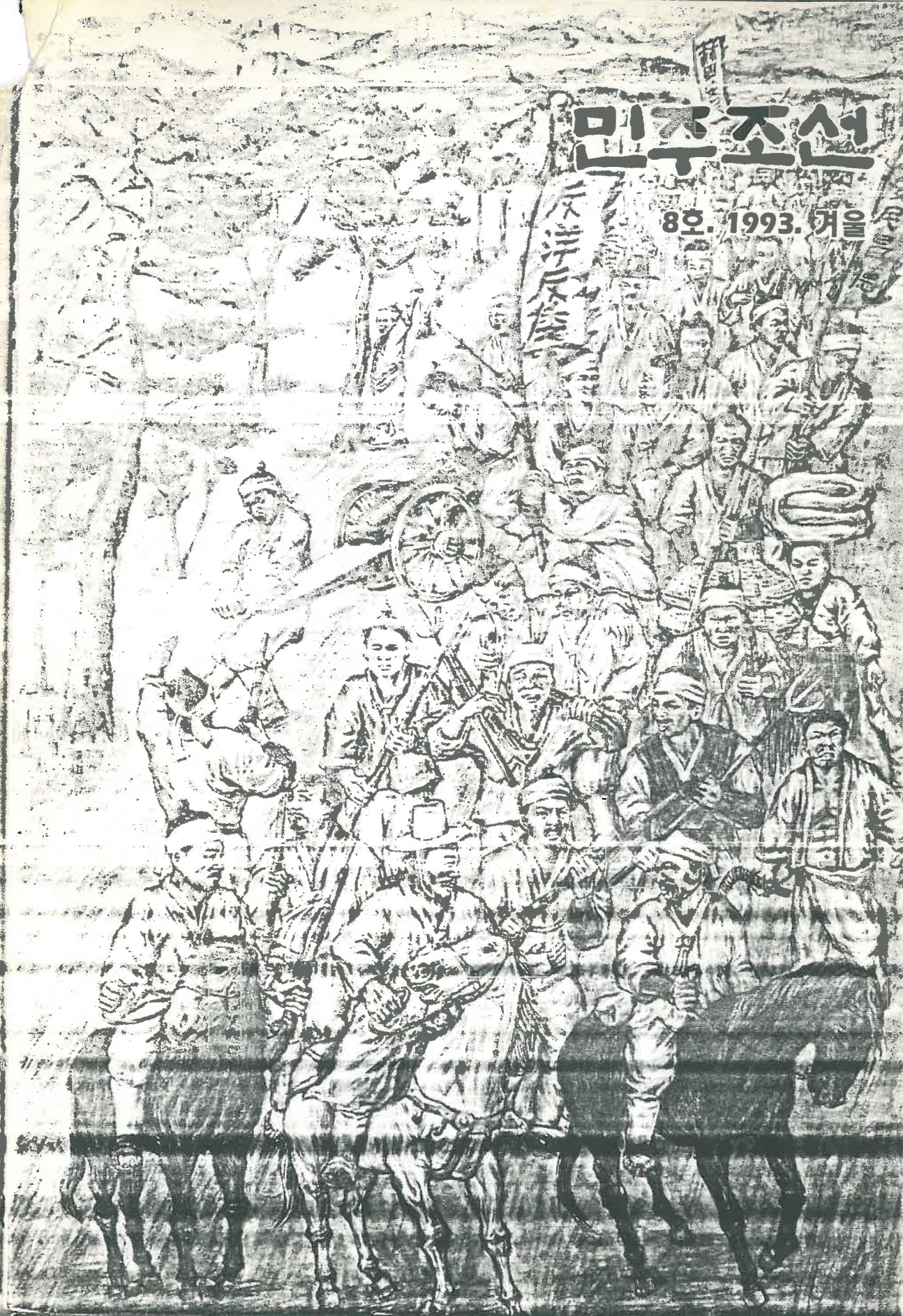


# 민주조선

8호. 1993. 겨울



1993년 겨울

표지화-리상호 작 (회화 89년 졸)

『동학농민군의 행렬도』

장성 황룡강전투 승리후 새로운 세상을 낙관하며 길재를 넘어 전주성으로 입성하는 모습. 동료들이 다칠세라 낫을 새끼줄로 묶어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상당한 농민들을 부축하는 행렬도 그 앞에 환한 웃음으로 동료들의 무기를 대신 들고가는 행렬은 따뜻한 인간애와 동지애가 엿보인다.

학보 / 삶이있는 자리 ..... 정지현

### 집중기획 / 왕토현에서 우금치까지

- 16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 편집위원회
- 27 반외세자주화투쟁의 시작-동학농민혁명 ..... 김용민
- 38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 장효문
- 46 일어서는 자의 후손으로 ..... 지지성
- 48 죄인으로 살아온 100년 ..... 리상호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의 후손을 찾아서

### 정치 / 드러나는 문민개혁의 안개

- 56 문민정부, 그 합법적 정당성에 가려진 권위 ..... 박동진
- 62 김영삼정권을 반대하는 청년학생 ..... 남총련정책위
- 72 금융실명제와 한국정치 ..... 이재의

### 생활글

- 80 보여줄수 있는 아주작은 사랑 ..... 홍석노  
- 건강하게 만날 덕안이를 위해
- 84 페르귤트 음악처럼 편안해요 ..... 이향미  
- 복직한 학생의 학교생활
- 88 김밥과 통닭으로 보이는 교수님얼굴 ..... 천경희  
- 이부대학 경희의 아르바이트
- 92 빵튀기가 정력제라고 ..... 안희은  
- 동아리의 투쟁과 사랑을 한데 모아
- 98 나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 이채행

### 동아리탐방 / 야학동아리 등불

- 102 공부 안할래요 ..... 조기성

### 조대미술관 / '93 미대 졸업작품전

### 학우이야기


- 111 작지만 바쁘게 살아요 ..... 최은옥  
- 사학과 경희의 학교생활

### 만나고 싶었습니다.

- 118 나주농민회 부르스 유 ..... 진재후  
- 유상옥 선배를 찾아서

### 특집 I / 우리학원이야기

- 130 이사개편투쟁과 민족대학 ..... 김정기



지금부터 약 100년전 1894년은 앞으로는 조선  
불건국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밖으로 침략외세  
를 몰아내 자주적인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는 농민  
전쟁이 일어난 해이다.

자주시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싸우나 죽어간  
수많은 민중의 희생 농민군 지도부의 대응 외세  
와 결탁한 보수 지배세력의 기함주의적 대응과 반  
중탄압들은 100년 뒤인 오늘과 근미래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민중적시)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 반외세자주화투쟁의 시작 -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 일어서는 자의 후손으로
- 죄인으로 살아온 100년

조선  
외세  
농민

전봉  
준

취재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 등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편집위원회



광주전남의 동학농민전쟁의 전적지를 찾아 나서려고 하니 막상 막연함이 앞섰다. 그러나 중요한 전적지를 중심으로 돌아보기로 계획을 세우고,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하여 농민들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고부땅을 비롯한 전라북도 일대의 전적지를 먼저 찾아나서기로 하였다. 농민군이 무장에서 1차기포를 한 후 전남의 영광, 함평등을 차례로 점령하고 전주성을 함락하였으며, 2차기포때에도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이 전남쪽으로 계속 후퇴하였기 때문에 농민군의 흔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읍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침 일찍 광주를 출발하여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정읍땅에 접어들었다.

1894년 1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봉기가 신임군수 박원명의 유화책으로 일단 해산되었다. 농민군이 해산하고 안핵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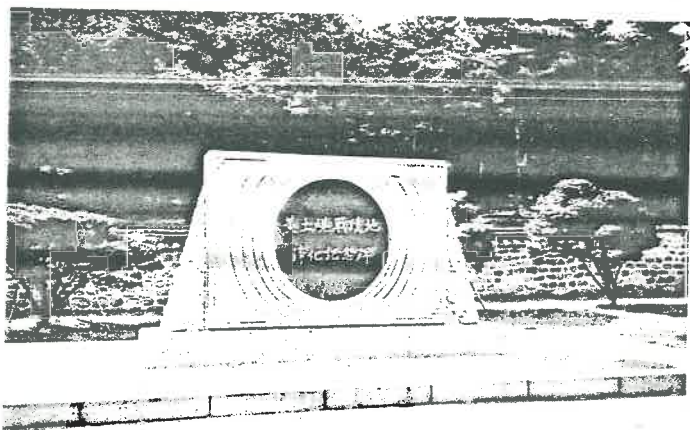
파견된 이용태는 참가자와 주모자를 색출하고 잡아들인다. 이에 격분한 전봉준은 손화중과 함께 전라도 무장에서 4천여명의 농민군을 모으고 '창의문'을 선포하여 농민군이 일어날 뜻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것이 189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의 시작으로 1차 무장기포이다.

### 농민봉기의 발원지 정읍으로

무장을 출발한 전봉준은 최경선이 이미 조직해 놓은 농민군과 말목장터(정읍군 이평면 소재지)에서 합류하여 고부읍을 점령한다. 이어 25일에는 고부읍에서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게 되는데 이즈음 주변에 모여든 농민군이 8천여명에 이르게 되며 본격적인 농민군으로 조직된다. 전봉준은 백산에 '호남창의소'를 설치하고 사방에 격문을 띄운다. 이 격문을 보고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이 백산으로 모여든다.

전봉준의 농민군은 3월 29일 백산으로부터 태인, 부안을 차례로 거치면서 무기를 접수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감영군을 황토재로

◀ 나주군청앞 정수루. 동학 농민군과 관군이 대치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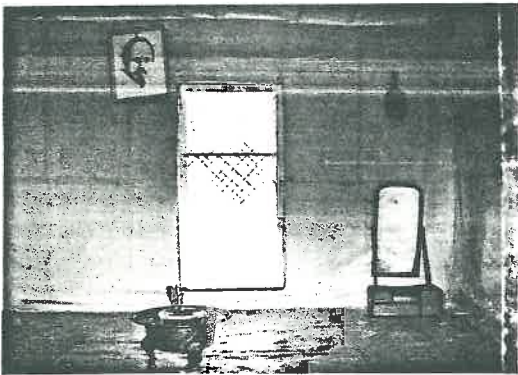
▲ 황토현기념관(정읍군) 안에 있는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유인해간다. 이때가 4월 6일이었다. 황토재에 주둔하고 있는 감영군을 7일 이른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 대승을 거두게 된다

###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크게 격파하다

지금은 이곳에 박정희때 세운 기념탑과 전두환때 건립된 기념관이 그것을 세웠던 주체의 정권을 정당화하려는듯 덩그란히 자리잡고 있어서 그 날의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이나 함성을 찾아보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던 이 곳 황토재는 동학농민전쟁이 반봉건반외세운동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1960년에 들어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 (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있는 백산 (백산기업이 들어서서 10년전부터 백산을 깎아먹고 있다)
- ▲ (아래) 전봉준장군 고택 (정읍군 이평면 조소리)

1시간여 동안 기념관과 황토재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때까지 관람객이란 우리 일행밖에 없었다. 길을 몰라 어렵게 찾아 왔던 때문인지 1시간여 동안 기념관과 황토현 주위를 둘러보며 농민군이 감영군을 유인하면서 넘었을 도교산과 사시봉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농민군의 행렬을 상상해 보았다. '보국안민(報國安民)'의 기를 앞세우고 죽창과 곡괭이로 무장하고 신식무기를 가진 감영군에 맞서는 농민군들의 각오는 대단하였을 것이다. 봉건지배세력의 수탈과 압박에 참다참다 못 이겨 일어난 한(恨) 그 자체였을 것이다.

황토현 기념관에서 나와 부안쪽으로 차로 20분정도 가다보면 이평면 소재지가 나온다. 지금은 그곳에 장이 서지 않지만 무장에서 봉기한 농민군들이 최경선의 농민군과 합류하여 잠시 쉬어갔던 말목장터이다. 지금은 전봉준이 쉬어 갔다고하여 그곳에 정자가 지어지고 있었다.

황토현에서 말목장터로 가는 길에 조소면 장내리가 나오는데 그곳에 가면 전봉준의 고택(古宅)이 보존되어 있다. 마루 상기둥에 걸려 있는 방명록에는 방문객의 체취가 끊기지 않고 남아 있었다. 전봉준의 초상화와 방안 한가운데 있는 화로만이 유품인 듯 청승스럽게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관리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갔을때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봉준이 태어났다는 생가는 아직까지 어딘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봉준의 고택에서 나와 말목장터를 거쳐 백산으로 가기 위해 부안땅으로 접어들었다.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평야 한가운데의 우뚝 솟은 작은 산이라는 말만 듣고 가다보니 막연했지만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백산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있는 50미터도 채 안되는 조그만한 산인데 사방이 평야지대라서 전략적으

러보  
에는  
인지  
러보  
도  
민군  
國安  
장하  
민군  
배세  
어난

차로  
은다.  
기 봉  
하여  
봉준  
지고

소면  
고  
걸려  
않  
한가  
그  
프케  
· 갔  
되어  
락혀

어쳐  
었다.  
구뚝  
자연  
군  
조  
격으



황토현전적지에서 바라본 들판

로 중요한 위치였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제곡구민(濟瀑求民),보국안민(報國安民)'을 외치며 전주성 입성의 결의를 다지며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들이 하얗게 뒤덮었을 백산인데 지금은 10년전부터 들어선 돌공장에서 돌을 캐내고 있어 하얀 속살을 들어낸 채 하얀 먼지만을 날리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백산은 자취를 감춰버릴지도 모른다.

### 황토현에서의 여세를 몰아 영광으로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둔 농민군은 차례로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법성, 함평, 나주를 거쳐 장성 황룡강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된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부안, 정읍, 흥덕등지를 석권한 다음 전남지역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진격한 곳이 영광이다.

4월 20일 농민군에 의해 영광이 점령당하기 전에 농민군이 무장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영광군수 민영수는 4월 9일 법성포로 피신해 있다가 창고의 곡식을 싣고 바다를 통해서도

망을 간다. 농민군은 영광에서 4일간 주둔하면서 훈련을 하고 법성창의 곡식을 확보하여 군량을 쓰기 위해 법성포로 진격한다. 포구를 둘러싼 앞뒤의 산 기슭과 마을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은 세곡을 실어내기 위해 들어온 전운선 한양호에 뛰어올라 전운국원 김응덕과 일본인 항해사 나가노,기관수 도꾸나가 등 5명을 때려 놓는다.

농민군의 2차 봉기때에도 영광에서는 8천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오시영, 오하영이 기포하게 되는데 수많은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때 죽은 농민군의 시체를 찾아가지 못하게 일본군이 한군데에 무더기로 화장하였다고 한다.그때 일본군이 화장하였다는 곳인 영광읍 하지리의 우시장에는 몇년전 까지도 땅속에서 불에 탄 것으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미리 책을 통하여 그곳이 농민군이 죽어 묻혔다고 알고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듯 전남의 여러곳에는 농민군이 처절히 싸우다 죽어 갔지만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아 볼 수 없고 조그만 기념비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다.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이곳도 마찬가지로 전혀 아무런 표식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의 구전에 의해 전해 내려 왔기에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농민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점령했다는 영광에서 나와 농민군의 진격로를 따라 함평에 도착하니 어둠이 내려 앉고 있었다.

### 함평에서 농민군의 위용을 과시

1차기포시에 영광과 법성포를 점령한 농민군이 진격한 곳이 함평이다. 4월 16일 오후 함평으로 농민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함평의 사민 1백여명이 동헌에 나와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낭패를 덜 당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동헌은 한국전쟁때 불타버리고 그 자리에는 함평군청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농민군은 4일간 주둔하면서 사열을 하는 등 내부결속과 군율을 정비하고 나름대로의 엄중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한편 18일에는 당시 나주목사 민중렬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띄운다. 농민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공무원이 뺄 수 있는 다른 고을 수령과는 달리 더욱 엄

중한 방비를 하고 있었던 나주를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 전봉준이 글을 띄워 겁을 준 것이다. 그리고 19일에는 8개조의 폐정을 양호초토사인 홍계훈에게 보낸다.

2차기포때에도 함평에서는 천여명의 농민군이 봉기하였으며 농민전쟁의 실패로 많은 농민군이 죽어갔다.

그후, 농민군은 경군이 영광에 도착할무렵 홍계훈의 경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나주와 장성으로 나누어 진격하게 된다. 본진을 장성쪽으로 출동시키고 나주로는 경군을 영광에 묶어둘 정도의 군사만 진격시켰다. 홍계훈부대는 영광까지 오는 동안 반수는 농민군의 위세에 질려 도망가 버린 상태였으며 농민군의 공포니만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다. 농민군의 주력부대가 이미 장성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을 때 4월 23일 서울에서 파병된 총제영중군 황헌주의 증원군과 법성포에서 홍계훈부대와 합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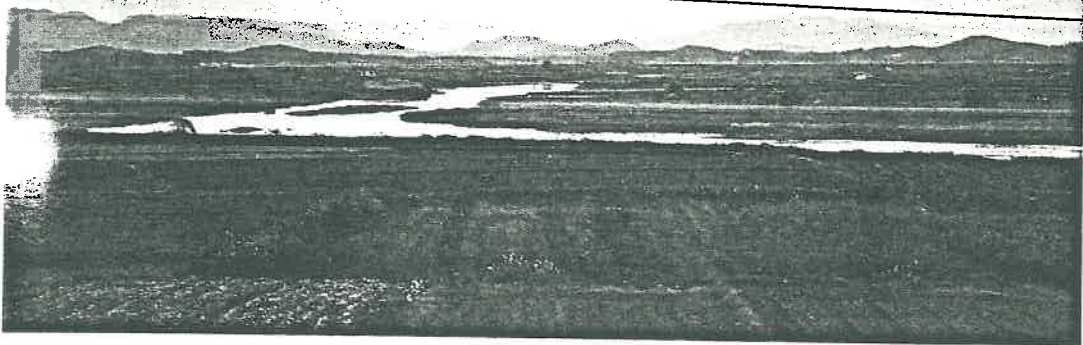
### 황룡강 전투의 승리로 전주성 무혈입성

홍계훈의 명령을 받고 장성 황룡강에 도착한 이학승이 이끄는 경군은 강건너 월평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농민군을 발견하고 대포를 쏘아댄다. 홍계훈의 선불리 접전하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학승은 신식무기만을 믿고 공을 탐내 후 원군도 기다리지 않고

◀ 나주군청 뒷면에 있는 금성관  
농민군 특별의 총본영인  
초트영이 설치되었던 곳



농  
민  
군  
의  
정  
세  
와  
정  
국  
의  
변  
화



▲ 금주의 방어선이었던 극락강. 농민군과 관군이 격전을 벌였다.



▲ 이춘영장군의 손자 이현중(69세, 천도교 광산교구장)

공격을 한 것이다. 점심을 먹고 있던 농민군은 곧바로 월평리 삼봉(현 월선봉)으로 올라가 진세를 학형으로 만들어 장태를 이용해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된다. 지방군이 아닌 경군과 최초로 벌인 전투에서 농민군은 경군대장인 이학승의 목을 베고 3백여명의 경군을 사살했으며 대포 2문과 양총 1백여정을 노획하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함평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지금은 함평군청으로 쓰이고 있는 농민군이 사열

등을 했음직한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상상만을 해 볼 수 있을 뿐이고 신선한 아침공기로 허전함을 달래야 했다. 장성 월평장터에 도착하기전 동학농민전쟁 당시 장성접주를 했고 황룡강 전투에도 직접 참여했던 이춘영장군의 아들인 이규익(96세, 93년 7월 사망)을 만나 보기 위해 광산구 광산동에 들렀으나 아쉽게도 3개월전에 돌아가신 이규익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현재 천도교 광산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현중(69세)으로부터 한 세대를 더 지나쳐 황룡강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황룡강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장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장태란 것은 그때 농민군들이 첩 사용했다는디, 크기가 가로 열자에 높이가 너자반 정도 되는데 저기 월선봉에서부터 굴리고 내려오는디 총알도 뚫지 못했다는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 가을견이 하고 난 짚을 넣다고 들었어." 우리가 듣고자 했던 조부에 대한 이야기나 장태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만 더 뿐이고 천도교의 역사와 접주들에 대한 이

## 활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광산동에서 나와 기차길을 따라 올라가면 10분도 채 안되어 제 2황룡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월평장터는 옮겨갔으나 아직도 우시장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당시 농민군에 의해 죽은 경군대장 이학승을 기리기 위해 1897년 세워진 순의비는 지금도 신흥리 신촌 부락의 포도나무밭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는듯 하다. 그 자리에 '농민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탑이 세워져야 하는데'하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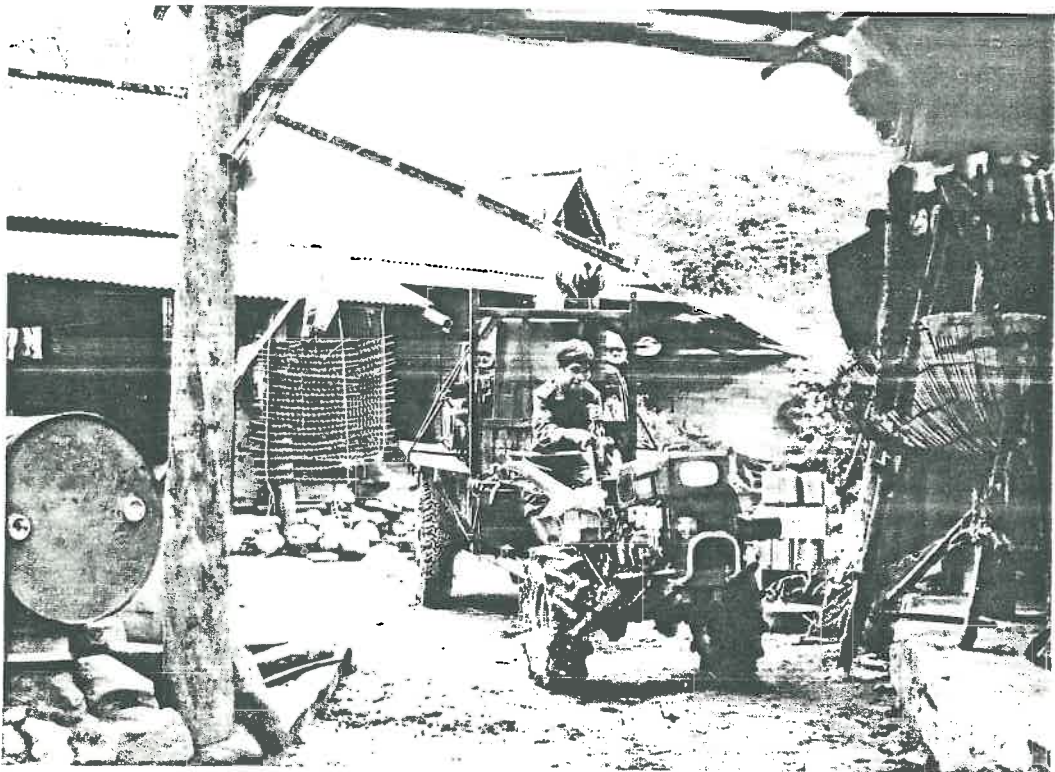
장성 황룡강 전투는 농민군이 지방군이 아닌 서울의 정예부대를 물리쳐 전주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권력층과 귀족을 모두 없애고 민중세상을 만들겠다는 농민군의 꿈이 현실로 가까워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장성 황룡강전투의 승리로 전주성까지 무혈

입성하여 나중에 뒤따라온 경군과 전투가 있었고 이로인해 전주화약이 맺어진다. 장성 황룡강에서 전주성을 향했던 농민군의 뒤를 계속 따르고 싶다는 충동을 누르고 나주로 향했다. 나주로 가는동안 전주성으로 입성하는 농민군의 무수한 깃발을 그리고 곡괭이가 아닌 신식무기로 무장하였을 당당한 농민군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 농민군의 골칫거리 나주성

나주에서는 대접주 오권선과 오중문, 김유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났으나, 목사 민종렬과 영장 이원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군이 영광, 함평을 점령하고도 나주에 진격하지 않고 장성으로 향한것도 나주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탓



▲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장군 후손의 집 (정읍군 칠보면 지금실 마을)

가 있  
정 황  
계  
향했  
농  
아닌  
의 모

김유  
권중  
성을  
함평  
성의  
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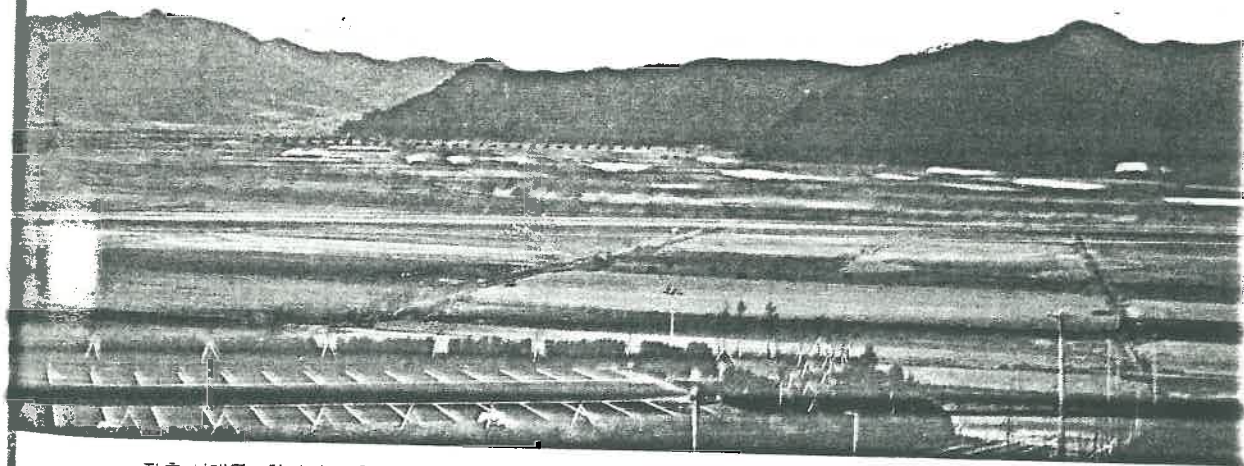
이었다.

7월 2일 오권선과 함세해 최경선이 나주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8월 13일 직접 전봉준이 나주로 가서 집강소를 설치할 것을 전봉준이 민중렬에게 요구하였다. 2차 기포시에 도 오권선이 3천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났다. 공주·논산에서 대접전을 치르고 후퇴, 다시 태인등지에서 한바탕 큰싸움을 끝낸 농민군은 대부분 최경선, 손화중부대와 결합한다. 이들은 나주접주 오권선과 합류하여 11월 24일 나주로 진격한다. 그러나 농민군은 계속되는 싸움과 굶주림, 추위로 무너지고 만다.

이후 나주에는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초토영이 설치되고 나주목사 민중렬이 호남초토사로 임명된다.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전봉준이 태인에서 농민군을 해산하고 부하의 고발로 순창 피노리에서 잡힌 후 이곳으로 압송되

지금도 그때 초토영으로 쓰였던 건물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현재 나주군청 안에 있는 금성관과 나주목사 내아 그리고 정수루가 그것이다. 그리고 금성관 옆으로는 그때 농민군토벌의 공을 치하하는 토평비, 나주목사 민중렬의 공을 잊지 못한다는 영세불망비 등이 남아있다. 그것들이 비교적 다른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으나 나주성을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기 위해 싸우다 얼마나 많은 농민군이 체포되어 이곳에 끌려와 피를 뿌리며 죽어갔을 것인가. 분명 이곳에는 죽은 농민군들의 한을 달래줄 수 있는 사당이 지어져야 하고 잘못 인식되어진 역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농민군에게는 등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였던 나주에서 나와 광주로 향했다. 오후들어 내



▲ 장흥 석대들. 2차봉기 이후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쫓겨내려오다 이곳에서 최후의 싸움을 벌였다.

었고 최경선, 손화중도 체포되어 끌려왔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나주에 집결한 일본군과 관군들은 무자비하게 농민군을 잡아갔을 뿐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 학살하였다.

리기 시작한 비는 농민군의 가슴 아픈 흔적들만을 되새겨가는 우리에게 더 없이 좋은 안주거리였다.

광주로 들어오다 보면 나주의 관군과 광주에 주둔한 농민군이 혈전을 벌였던 극락강이



▲ 강진 병영성이 있었던 자리에 탑이 세워졌다. 농민군이 함락했고 1895년 폐영됨.

나온다. 이 강이 나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건넌 곳이다. 광주는 호남대도소의 본거지로 5월 전주화약을 맺고 난 뒤 전라감사 김학진의 지원으로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주윤철이 활약하였다.

### 최후의 격전지 광주

전봉준이 9월들어 삼례에서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2차 봉기를 단행하였을때 각지의 농민군은 그곳으로 모였는데 광주에서는 손화중, 최경선의 지휘를 받아 박성동이 4천여명을 이끌고 합류하였다. 그리고 최경선과 손화중은

광주에 남아 남으로부터 상륙할지 모르는 일본군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띠고 나주의 민보군과 계속 전투를 벌인다. 정부에서 나주에 초토영을 설치한 것을 응징하려고 연속으로 공격하지만 어느쪽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였다.공주.논산에서 패전한 이후 11월 25일 원평, 27일 태인에서 싸움을 벌였으나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잔여 농민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남하하던 농민군은 광주에 와서 최경선,손화중과 합류하게 된다. 결국 잔여농민군을 이끌고 나주를 다시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광주로 후퇴했다. 11월 27일 쫓겨온 농민군 수만명이 광주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담양쪽에서는 일본군대대와 관군이 압박하여 들어왔다. 이에 손화중, 최경선은 광주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월 1일 농민군을 해산하고 화순, 동북쪽으로 쫓겨간다. 최경선, 손화중이 광주에서 물러난 후 광주에서는 대대적인 농민군 색출을 하게 된다. 1차로 주윤철이 포살된 후 12월 4일 담양에서는 22명이 잡히고, 동북에서는 3일 2백20명이 잡혀 1백57명이 포살되었고 창평, 능주, 남평 등지에서 많은 농민군이 잡혀 갇히거나 죽어갔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돈과 곡식을 빼앗아가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농민군의 5대 지도자(전봉준, 최경선, 김개남, 손화중, 이방언)의 두사람이 차지하고 마지막까지 항전을 벌였던 곳이라 그 피해는 훨씬 컸으리라 추측해 본다.

손화중, 최경선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벌였던 선화당은 현재 도청이 들어서 있고 농민군을 색출하기 위해 관군이 행패를 부리며 돌아다녔던 광주시가지에서 그때의 사실들을 찾아보기란 지극히 힘들었다. 그런 많은 아픔을 간직한 광주는 80년 5월 들어서도 농민군의 후예들이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상처를 덧씌웠었다.

민주의 성지 광주를 뒤로하고 화순으로 넘어가는 너릿재 터널을 지날 즈음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최경선이 농민군을 해산하고 쫓겨갔다는 너릿재는 지금은 광주와 화순을 잇는 터널이 뚫려 있다. 너릿재를 넘어 화순, 보성을 지나 장흥에 도착하였으나 우리가 농민군의 흔적을 더듬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밤이 되어 버렸다.

### 장흥 석대들에서 패한 농민군 해산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쫓겨 마지막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흥지방에서는 3월 무장 기포에도 많은 수의 농민군이 참여하였으며 장흥접주 이방언이 창안한 장대를 이용하여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5월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6월경에 장흥군 용계면 자라번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었으며 용반접주 이사경의 근거지로 목촌리 이방언의 어산 집을 능가하였다고 한다. 그후 7월 박현양이 장흥군수로 부임하고 농민군에 대한 수성군축의 공세가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수성군축의 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12월초부터 농민군들이 총집결하여 벽사역을 불지르고 12월 5일 장령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장흥부사 박현양과 많은 군졸들이 죽게 되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큰 순절비와 영회당이란 사당이 지어져 있다.

장령성이 점령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장흥 주변에 웅크리고 있던 농민군들이 북쪽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는듯 장흥쪽으로 집결한다. 각 지역에서 모여든 농민군은 당시 호남에서 전주 다음의 군사상 중심지였던 강진 병영성을 불태운다. 그 후 병영성은 1895년 폐영되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병영국민학교가 들어서 있는데 성을 둘러싼 석축과 수령 몇백년이 된



▲ 장령성에서 바라본 장흥읍내.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 용반접주 이사경장군의 후손 ▲ 이방언장군의 후손 이등 이정대씨

나무들이 남아 있다. 그 자리에는 작년(1992년) 4월 전라병사영지를 밝히는 탐과 그날의 전투를 기리는 탐이 옆에 세워져 있어 그날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공주전투에서 패해 계속 남으로 내려오던 농민군은 영암에서 또 한번의 대접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2만여명의 농민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나머지 농민군은 강진과 장흥으로 쫓겨와 장흥에서 집결한다. 장흥에서 집결한 농민군은 장흥 모정등에서 일차 접전하고 석대들로 물러나 진을 치고 있었다. 12월 15일 농민군은 장흥의 주변산과 들판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도중대와 일본군의 협공에 의해 석대들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후 더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이상 조직적으로 저항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인근의 천관산 속으로 혹은 강진의 칠량 대구방향으로 혹은 보성, 회령 방향으로 남쪽 바닷가로 숨어들었다가 배를 타고 섬으로 숨어들기도 하였다.

아침 일찍 우리는 안내를 해 주실 장흥접주 이방언의 증손인 이종찬씨(56세/장흥군 용산면 인암리)를 찾아 갔다.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으로 이장군의 후손답게 소박하지만 기개가 있는 분이였다. 우리가 먼저 안내를 받은 곳은 이방언장군이 태어났다는 묵촌 마을 앞뜰 ‘도르쇠’란 곳으로 농민군이 훈련을 하였던 곳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안내 받아 간 곳은 1991년 봄에 건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였다. 비가 온 후라서인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기념탑을 휘감아 돌고 지나간다. 기념탑이 있는 곳에서 조금만 읍쪽으로 오면 장령성터가 나온다. 지금은 그 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장흥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 농민군과 수성군이 점령하기 위해 꽤나 점전을 했을 것 같다.

“저기 밑에 가면은 영회당이라고 사당도 있고 박현양이 순절비도 있는데, 석대들에서 죽은 농민군들 모실 사당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시신을 못 찾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네.”라는 이종찬씨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 뒤바뀐 역사적 평가 재조명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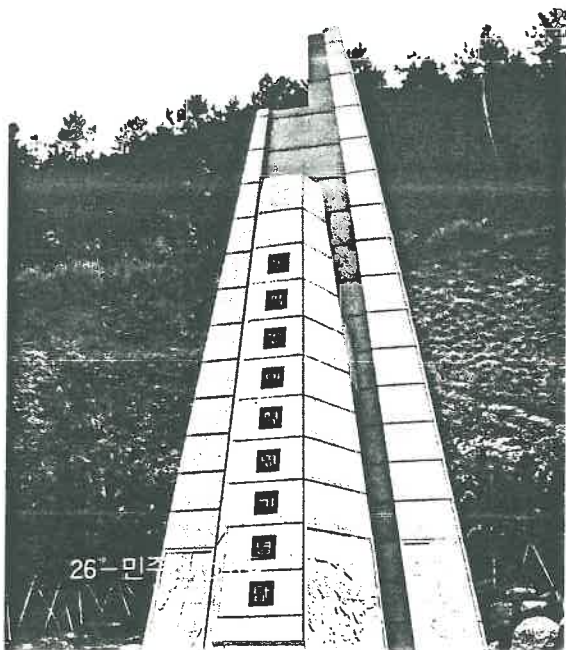
황토현을 출발하여 장흥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지나친 그 어느곳 하나 농민군의 흔적이 남겨지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발굴해 내지 못할 뿐이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 알려진 곳이라 하더라도 보존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표식 하나 제대로 붙어 있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그 곳에는 많은 농민군을 죽인 공을 기리는 비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건재하여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전적지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전적지를 발굴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은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패된 조선 봉건사회를 변혁시키고자 일어난 1차 봉기가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다면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일어난 2차 봉기는 반외세의 성격이 두드러진 농민 중심의 전민중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동학농민전쟁의 실패로 조선 사회는 근대화로의 발전은 물론 일본의 식민치하로 곧장 내달리게 된다.

그후로 암흑의 미군정기를 거쳐 분단의 역사로 이어진다. 아직까지도 이땅에서는 제국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며 이에 반하는 농민군 후예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일행이 2박3일동안 동학농민전쟁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단순한 농민군 승결이 아닌 역사의 아픔이었다.

◀ 장흥공설운동장 곁에 세워진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석대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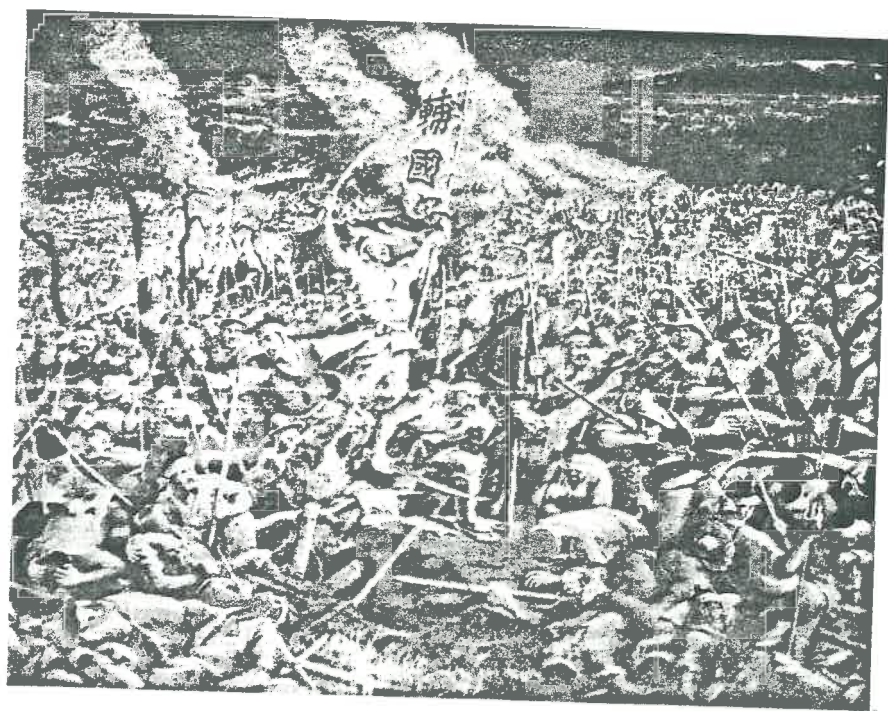


”라는

안 우  
적  
것을  
운 것  
제대  
불어  
농  
일이  
밝혀  
전  
급한

개변  
시키  
강  
봉  
임의  
조  
해  
선  
민

역  
국  
민  
적  
습



# 동학농민혁명 반외세자주화투쟁의 시작

김 용 민 / 자유기고가

지금부터 약 100년전 1894년은 안으로는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밖으로는 침략외세를 물리쳐 자주적인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던 농민전쟁이 일어난 해이다. 자기시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민중의 희생, 농민군 지도부의 대응, 외세와 결탁한 보수지배세력의 기회주의적 대응과 민중탄압들은 100년 뒤인 오늘과 견주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189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은 그동안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일제 식민사관에 쫓

은 사람들에게 의해 왜곡되거나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일부 연구자와 운동세력은 농민전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또 우리의 역사를 아끼는 사람들도 농민전쟁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을 앞두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려는 작업이 곳곳에서 활발하다. 그러나 그 관심과 노력이 기념을 위한 기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민전쟁을 누가 왜 일으켰으며, 어떻게 진

## 합동현에서 우금치까지

행되었고 전쟁이 당시 농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해 주는가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 19세기 후반 농민들의 생활

19세기 후반 이땅의 농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땅의 농민들이 1894년에 목숨까지 내던지며 지배층과 일본군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운 까닭은 무엇일까? 현재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 그 이유를 개항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이에 따른 봉건지배층의 수탈가중, 제국주의 세력의 조선침략, 그리고 민중의식의 성장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을 살고 있던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짓는 그들의 삶이 왜 고단한지를 현재의 설명처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농민들은 봉건지배층의 수탈,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마구 얽혀진 형태로 느끼면서 힘들어 하였다.

19세기는 자본주의적인 상품화폐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였다. 돈이 가치척도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기존의 삶은 급속하게 분해되고 있었다. 아울러 농민들은 새롭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1876년 조선정부가 일본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외국과 교역을 하게 되자, 농민들의 생활은 크게 변하였다. 그동안 조선에서 조금씩 자라오던 자본주의 경제의 싹은 외국자본과 상품이 마구 들어오자 그 성장이 억제되었다. 발전의 싹을 꺾은 침략세력 가운데 가장 앞장선 세력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조선시장을 지배한 주요 품목은 면직물, 쌀과 같은 곡류였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영국의 질 좋고 값싼 무명(서양의 무명은 옥갈

은 서양옷감이라고 해서 '옥양목'으로 부르게 되었다)은 시장과 포목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가내 수공업단계에 있던 조선의 섬유업은 설 자리를 잃었다. 조선의 면화재배도 타격을 받고 생산이 마비되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식량부족을 해결하려고 조선에서 쌀 콩 등 곡류를 헐값으로 마구 사갔다.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삼분의 일 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쌀 수출은 일부 지주나 부농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빌려쓴 고리대를 갚고 세금의 금납화 추세로 돈이 필요한 농민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일본 상인에게 쌀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1894년 농민전쟁때 정부에 '폐정개혁안'을 요구하였다. 그 가운데 "각 포구에서 쌀을 다른 나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조항은 농민들의 외국상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 고향을 떠나 도시빈민이 된 농민들

한편에서는 토지매입과 자본주의적인 상품화 관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부농과 부상들이 늘어가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고향을 떠나 날품팔이 노동자가 되거나 떠돌아 다니는 빈농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고향을 떠난 농민들은 도시로 갔지만, 농민들은 도시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른바 도시빈민이 되었다. 빈민들은 외세 특히 일본이 들어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었다고 느꼈다.

빈민가운데는 군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이 쌀을 마구 사가면서 군인에게 줄 봉급인 쌀이 없자, 군인들은 1882년 봉급체불을 계기로 군란을 일으켰다. 군인들의 투쟁은 곧바로 민씨정권 반대 반일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

개되었다. 군인들은 민씨정권 요인들의 집을 파괴하고, 경기감영에서 일본인 3명과 일본인 소위를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한편 문호개방은 권력층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개항 뒤 보기 좋고 쓰기 좋은 자본주의 제품이 들어오면서 권력자들의 씹씹이도 늘어났다.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개항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법과 규모가 커졌다. 대표적인 예로 평안감사에 부임한 지 한달이 못되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고종에게 바치고 '금 송아지 대감'이라는 별명을 얻은 민영준이 있다. 또 10만냥을 왕실에 바치어 균전관이 된 뒤 고부 일대의 농민들에게서 10만냥을 뜯어내려다 고부 농민항쟁의 불씨를 마련했던 김창석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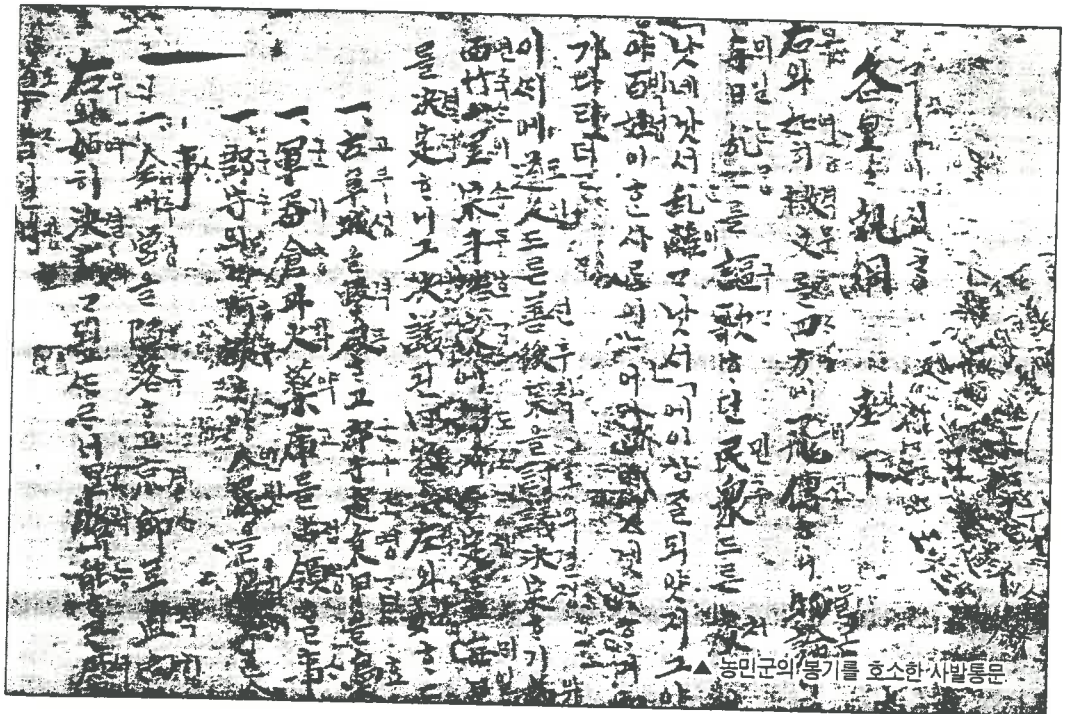
관리들의 탐학이 조선팔도 곳곳에 미치면서 농민들은 권력자의 수탈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1894년 전쟁에서 농민들이 요구한 '폐정 개혁안' 가운데 "탐관오리의 탐학을 제거하라"는 조항은 권력의 핵심부터 지방의 말단 아전

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씌어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는 봉건적 착취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려 했던 농민들의 외침을 담아 낸 것이다.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의 삶은 언제나 힘들게 마련이지만 지금부터 100년전 민중들의 삶은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나아가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기 위해 외세의 침략과 봉건적 수탈을 없앨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 1894년을 뒤흔든 농민전쟁

동학은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초기까지 교세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학 지도부로 하여금 동학의 공인을 얻기 위한 최시형의 신원(伸冤)과 동학도에 대한 가림주구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운동  
과학  
기회  
그러  
경제  
동을

지역  
항쟁  
고부  
마침  
병갑  
삼았  
로 먼

팔왕  
달리  
대해  
민에  
어 엮  
!군수  
!양을  
여 거  
켰다.  
의 브  
!아에  
다. 마  
고부  
!아를  
차지  
!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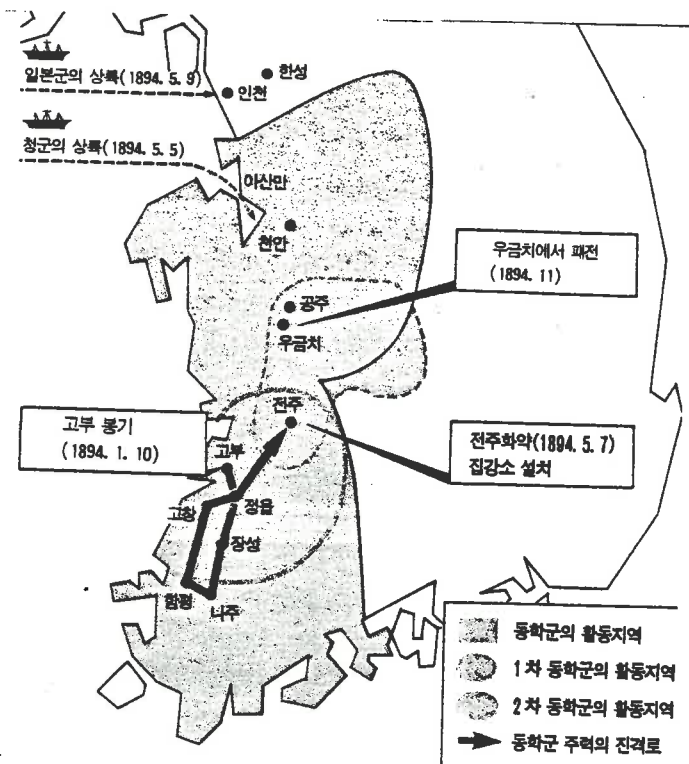
1962년  
!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고부민란은 이제까지 민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일반적인 민란은 통문을 받은 각 마을의 집장이나 리임들이 동원한 농민들이 읍내 가까운 곳에 모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대표들이 수령에게 등소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되면 농민들은 관아나 부호의 집을 부수었다. 반면 밤중에 행군하여 새벽녘에 관아를 습격하였듯이 고부농민들의 관아습격은 상당히 비밀스럽고 갑작스러웠다.

또한, 고부농민 항쟁을 이끈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의 의식은 18세기 후반이래 축적된 저항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농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봉준은 일신상의 피해 때문만이 아닌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함으로서 세상을 한번 건져 보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고부의 농민들이 해산한 뒤 민란을 조사하러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는 조사를 빌미로 농민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집을 부수고 잡아가는 등 못된 짓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이에 전봉준등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동학접주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등과 함께 '세상을 한번 건져보려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고부농민항쟁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좀 더 나아지게 하려는 농민들의 염원과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려는 전봉준 등이 결합하여 일어난 농민항쟁이었다. 때문에, 고부농민 항쟁은 이전까지의 민란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농민 항쟁도 이전의 민란과 마찬가지로 고부인만이 가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지도부는 고부군을



뛰어넘어 농민들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동학의包조직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봉준은 그 생각을 1894년 3월 무장에서 기포할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 마침내 일어서는 농민군

부농과 중농이 동조하고 빈농과 소농이 주력이 된 농민군은 1894년 3월 죽창을 들고 전라도 무장에서 기포하여 첫 창의문을 포고하고 격문을 돌려 백산에서 모일것을 호소하였다.

'우리가 纒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착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小吏들은 무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격문에는 탐학한 관리 양반 부호와 횡포한 외국세력을 적으로 삼자는 농민들의 '반봉건 반침략' 염원이 잘 나타나 있다. 격문이 돌아 농민들은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농민들은 전봉준 등의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민란만을 일으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장기포를 시작으로 국지성을 벗어나 연합부대가 형성되어 규율을 갖춘 농민군이 짜여졌다. 대장은 전봉준, 총령관은 손화중·김개남, 총참모는 김덕명·오지영, 총솔장은 최경선이 되었다. 3월 25일(양력4월 30일)이후 사방에서 백산에 모인 농민군은 '통도대장' '보국안민'이 씌어진 깃발아래 죽창을 들고 마음껏 함성을 질렀다.

4월 6일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과 싸워 첫승리를 거두었다. 황토현을 출발한 농민군은 고창성을 점령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토호 은수룡의 집을 부수고 성안의 무기를 빼앗고 장부를 거두어 들였다.

농민군은 무장, 영광(4월 12일), 함평(4월 16일)을 거쳐 장성(4월 21일)에 도착하였다. 농민군은 장성 황룡강에서 관군을 크게 이기고 대포2문과 양총 100여정을 얻고 경군 3백명을 죽였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이끄는 농민군은 '보국안민'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며 전주성으로 갔다.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고, 횡포를 부리던 양반 부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분을 풀기도 하였다.

한편 농민군이 전주성 안에 오래 머물자 상황은 오히려 농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첫째, 동학의 중심교단인 최시형쪽의 호응이

없었으며, 둘째, 외국군대의 개입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셋째, 농민군의 내부에서 동요가 일었고 식량이 부족한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5월 3일 전투에서 농민군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즉, 이 전투에서 농민군의 사기를 돋구던 어린장사 김복용과 지휘자 김순명, 그리고 수백명의 농군이 죽었다.

마침내 5월 8일 농민군은 폐정개혁안을 요구하며 정부측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그 이후 농민군은 각 지역에서 집강소라는 '농민권력기관'을 세우고 개혁정치를 시행하였다.

### 조선문제에 개입하는 청과 일본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열강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농민군의 동향을 지켜보았다. 특히 일본과 청은 초기부터 농민군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전주화약이 맺어지자 출병의 구실이 없어졌다. 그러자 일본은 조선정부에 내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내정개혁을 거절하자 일본군은 6월 21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세웠다.

8월 16일 청일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일본은 7월 26일에 맺은 '양국맹약'에 따라, 9월들어 조선군대의 지휘관을 쥐고 농민군 토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9월 9일 일본공사는 농민군을 토벌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일본군 2개 소대가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서울로 출발하였고, 9월 21일에는 일본 대본영에서 농민군을 토벌할 전략을 세웠다.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나온 뒤 전라도 각 고을로 돌아가 이른바 집강소를 설치하고 억울한 농민들의 일을 처리하였다. 농민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토호 양반들을 잡아다 벌을 주고 마을을 다니며 부자집을 털기도 하였다. 농민군 지도부는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을 빨리 시행할 것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농민군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은 전라감사 김학진이 이를 시행하라고 각 고을에 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나마 정부에서 만든 개혁조치도 후퇴하였다. 그 예로 8월 10일경에는 6월 28일 재정한 군국기무처의 안 가운데 농민군이 요구한 '반상의 등급을 혁파한다'는 조항은 '관리를 등용할 때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로 '공사노비를 일체 혁파한다'는 조항은 '양인으로 천인이 된 자는 대대로 천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로 바뀌었다. 이제 조선정부는 개혁은 뒷전에 밀어두고, 외세의 힘을 빌려 농민군을 진압하려는데 힘을 기울였다. 다시 옛날로 뒷걸음치는 지지부진한 개혁을 반대하고 조선을 차지하려는 일본을 조선땅에서 몰아내고자 농민군은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 전라도 농민군의 동향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한 곳은 김개남 휘하 남원 일대의 농민군이었다. 8월 19일경 전라도 홍양, 보성, 태인, 남원등지의 연합 농민군 천여명은 남원 교통산성을 공격하여 무기를 꺼내 무장하였다. 김개남은 전봉준과 손화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농민군 약 7만여명을 남원에 소집하여 8월 25일경 재봉기를 결의하였다. 이때의 분위기를 「고종실록」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비도가 남원부에 무리를 모으고 있으면서

군기를 수색해 빼앗고 있다. 호남의 비도들이 곳곳에서 난리를 일으켜 군기를 빼앗고 있다.

9월 들어서는 김개남의 영향권에 있던 영호 대도소 대접주 김인배가 이끄는 순천, 광양 농민군이 9월 1일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하고 9월 17일에는 진주를 점령하여 충청대도소를 설치하였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전주일대의 농민군은 9월 들어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무기를 거두어 들었다. 전봉준은 삼례의 저막에 거처를 정하고 측근인 손여옥, 조준구, 송일두, 최대봉과 함께 모병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타도하려고 삼례로 모이자'는 내용의 통문을 각지역에 돌렸다.

### 충청도 농민군의 동향

동학교주인 최시형은 처음에는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른바 '혁명가'나 '운동지도자'이기 보다는 '종교지도자'였으며 전쟁을 치러 어렵게 이룬 동학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형이 9월 18일 청산에 모인 각포 두령의 의견을 좇아 재기병을 결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맹영재 등이 이끄는 민보군이 경기도 충청도일대의 동학교도들을 남김없이 토벌하고 있었다. 때문에 최시형 중심의 북적 교단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었다. 둘째, 충청도 농민들도 개혁은 뒤로 미루고 농민군을 진압하려는 조선정부의 반동적인 움직임을 참고 있을 수 없었다.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전쟁준비를 서둘렀다. 9월 30일에는 천안 대접주 김화성, 목천 대접주 김용희가 이끄는 동학 농민군이 현안, 목천, 전의 세고을의 무기와 곡식을 꺼내가

## 횡탄현에서 우금치까지

지고 목천 세성산에 집결하였다. 충청도 해안 지방에서도 박인호 등이 기포하여 농민군을 모았다.

북접 영향권에 있는 충청도, 경기도 동학 농민군은 일단 보은 장내리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종훈, 이응우가 이끄는 경기도 농민군은 10월 6일 괴산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싸워 이기고 괴산을 점령하였다. 또 손천만이 이끄는 충청도 농민군은 청주 쌍교장터에서 접전하였다. 이들 농민군은 곳곳에서 관군 일본군과 싸우며 모두 보은 장내리로 모여들었다.

### 다른지역의 농민군 동향

경상도는 무경, 예천, 상주, 선산, 함양, 금산, 밀양, 하동, 진주, 진해, 신령, 사천, 고성 등지에서 농민군이 일어났다. 진주에서는 9월 8일 동학 농민군의 주도로 73개면의 민들이 각 면마다 100명씩 죽창을 들고 읍내 장터에서 도회를 열고 충청대도소를 설치하였다.(공사관 기록) 9월 15일에는 하동 동학 농민군 수천명이 곤양 다솔사에서 집회를 갖고 광양 순천 농민군과 합쳐 진주로 향했다.

강원도는 1차 농민전쟁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9월들어 농민전쟁의 불길은 강원도 산골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홍천의 농민군은 9월 4일 강릉의 농민군과 함께 강릉 관아를 점령하였다. 관아를 점령한 농민군은 가혹한 세금을 감면토록하고 못된 지주들의 땅문서를 빼앗았다. 농민군은 천선교 이원호의 집을 습격하려다 민보군의 기습으로 관아를 버리고 평창으로 퇴각하였다.

###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들

일본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 준비를 서둘렀다. 일본군의 부대를 3로 나누었

다. 1로는 동로로 강원도를 지나 충청도 증양을 거쳐 전라도로 들어가고 2로는 중로로 충청도 증양을 거쳐 전라도로, 3로는 서로로 충청도 해안지대를 우회하여 전라도 서남 연안 지방을 거쳐 전라수영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9월 21일). 그리고 농민군이 섬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길도 봉쇄하였다. 농민군을 전라도 끝으로 몰아 전멸시키려는 것이었다.

천안 목천 지방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병력을 분산하고 공주의 농민군과 힘을 모으기 위해 목천 세성산에 9월말부터 진을 쳤다. 우선봉장 이두황은 이곳의 농민군을 두고 '공주감영과 충청병영의 사이에 있으면서 장차 소동을 일으킬 염려가 된다'고 하고 있다(양호선봉진 일기).

10월 21일 세성산에 있던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 대장 김복용이 죽고, 이 지역 농민군을 이끌던 김화성은 싸우고 도망가다 10월 24일 천안 의병에게 잡혔다. 세성산 전투에서 이긴 일본군과 관군은 방향을 공주로 돌렸다.

### 전봉준 부대의 공주 전투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부대는 10월14일 공주로 출발하였고, 16일에는 노성 논산에 도착하였다. 북접농민군은 10월 22일 공주 감영 동쪽에 진을 쳤다. 서쪽길에 있는 유구동에도 수천명의 농민군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비밀스레 전봉준과 약속하기를 선봉진이 이곳을 지날때 유구에 있는 농민군이 공격하고 전봉준은 금강을 건너 역공하여 위아래로 협공할 형세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 두었다. 농민군은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 여러 전투를 벌여 이기고 지고를 거듭하다가 군사를 돌려 전열을 정비하였다. 11월 18일 농민군은 다시 공주를 공격

하였다. 9일에는 우금치에서 50회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우세한 장비를 갖추고 제대로 훈련된 일본군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11월 14일 후퇴하였다.

공주전투는 일본공사 이노우에까지 공주에 급히 내려와 진두지휘를 할 정도로 일본으로서도 최대의 관심사였다. 일본은 최신 무기를 갖춘 정예의 일본군을 공주로 보냈다. 게다가 공주전투에서 모든 지휘와 명령은 일본군 장교가 하였다. 이제 싸움은 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이 되었다.

### 김개남 부대의 청주전투

전봉준 부대가 공주를 향해 출발한 10월 14일에 김개남 부대도 남원을 출발하여 16일 전주에 도착하였다. 김개남 부대는 공주로 가지 않고 청주로 향했다. 「오하기문」에는 '김개남이 전봉준을 성원하려고 금산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하기문」에 있는 내용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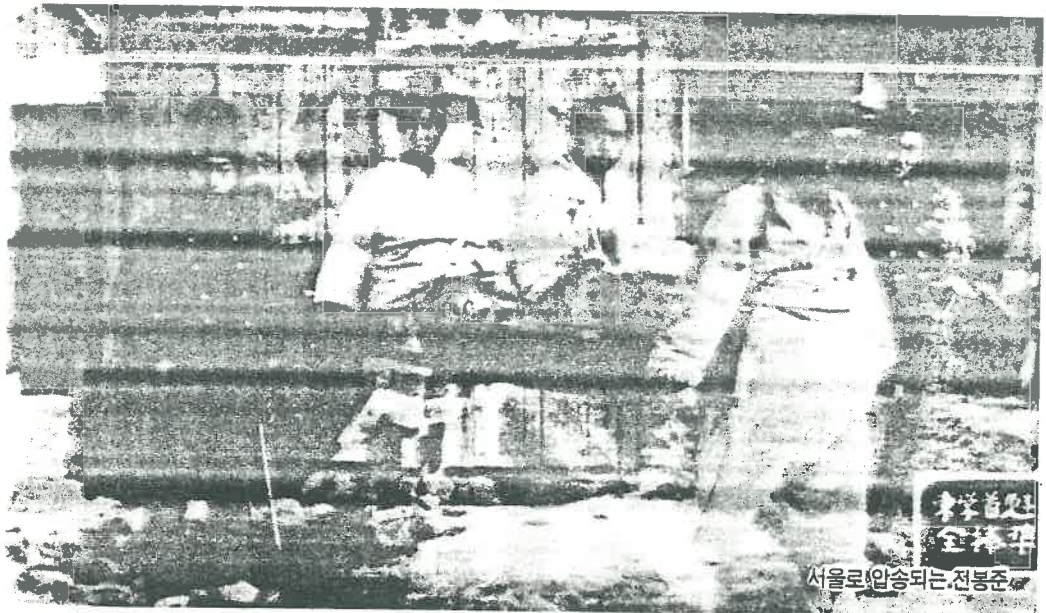
정해 볼때, 김개남은 16일 전주에 도착하자 전봉준을 만나 김개남 부대는 청주를, 전봉준 부대는 공주를 통하여 서울로 진격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김개남 부대는 11월 10일 청주전투에서 패하고 13일 퇴각하다가 17일에는 후퇴하던 전봉준과 강경에서 만나 경군과 싸웠다.

### 다른 지역의 전투

충청도 홍주 등지의 농민군은 10월 들어 관아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을 강화하면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일본군과 관군의 병력이 공주로 집결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농민군은 10월 28일 홍주성 전투에서 병력을 많이 잃었지만 그뒤에도 농민군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전투를 벌여 진압군이 공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농민군은 11월 9일 서산에 있는 매현 전투를 끝으로 11월 18일에는 완전히 해산하였다.

경상좌도에서는 금산, 상주, 예천 등지에서 농민군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경상도에서는



서울로 압송되는 전봉준



농민군이 진주, 하동 그리고 지리산 주변을 한 때 장악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11월초에 정선, 평창의 강릉부를 공격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황해도에서는 해주 등지에서 농민군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 끝까지 싸우는 농민군

광주 지역에서도 많은 농민군이 공주로 올라갔다. 최경선 손화중이 이끄는 광주 일대의 남은 농민군은 10월 21일에서 11월 중순까지 광주 침산 등지에 모여 나주를 위협하였다. 그러다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광주성으로 쫓겨 왔다. 손화중과 최경선은 농민군을 해산하고 몸을 피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부대가 공주에서 패하여 밀리고 있을 무렵, 이방언 대장이 이끄는 장흥 농민군은 관군과 계속 싸우고 있었다. 1차 농민전쟁때 고부민들을 마구 죽였던 벽사역졸들을 응징하기 위해 12월 4일 벽사역을 공격하였다.

한편 각 지역에서 밀려온 농민군은 장흥 사

창장터를 향하여 달렸다. 장흥 농민군과 힘을 합쳐 강진 병영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12월 7일 오전, 농민군은 이방언과 함께 공부하던 김한섭까지 가담한 수성군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강진현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12월 10일에는 병영을 점령하였다.

순천에 있던 영호대도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순천 광양의 농민군은 11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라좌수영을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전라좌수사의 구원요청을 받은 일본 군함이 보낸 일본군에 의해 11월 26일 격퇴하였다. 마침내 대세가 점점 기울던 12월 6일 새벽, 순천성안에 살고 있는 관리와 주민들은 영호대도소를 공격하여 영호대도소 대장 김인배와 부대장 류하덕의 목을 자르고 농민군 90여명을 처형하였다. 12월 10일에는 좌수영병 및 하동에 온 일본군이 농민군을 공격하여 28명을 총살하고, 평양읍으로 들어와 240명의 농민군을 총살하거나 효수하고 타살하였다. 빈농과 소농이 주력이 되는 농민군은 무기를 들자마자 최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랐다. 관군과 일본군은 우세한 화

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반면 농민군은 제대로 조직되거나 훈련받지도 않았으며, 구체제의 정신적 속박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단순한 본능만을 깨달았지 지식이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 농민전쟁이 남긴 것

봉건적 억압을 없애고 제국주의 침략을 막으려고 1894년 무기를 들고 일어섰던 농민군은 일본군의 엄청난 화력 앞에 쓰러지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져 갔다. 흔히, 농민전쟁을 이야기 하면서 농민전쟁이 실패한 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발판이 굳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일본의 침략을 불러오고 질 것이 뻔한 전쟁을 농민군이 왜 일으켰을까라는 미묘한 비난이 깔려 있다.

당시 개혁에는 두가지 길이 있었다. 개화파는 지주제를 그대로 놔두고 농민을 희생시키면서 부르주아 사회로 나아가려는 '위로부터의 길'을 걸었다. 농민군은 지주제를 비롯한 봉건잔재를 철저히 없애려는 '아래로부터의 길'을 걸고자 했다. 반봉건 투쟁 과정에서 서로 격돌하는 이 두가지 길의 승패 여하가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농민전쟁이 실패하여 아래로부터의 길이 좌절되고 위로부터의 길도 일본의 침략으로 차단되어 일제에 의한 가장 왜곡된 근대화를 겪게 되었다.

곧, 당시 대부분의 양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시각처럼 농민전쟁이 일본의 침략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농민전쟁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스스로 경험해야 할 근대화를 일본이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훌륭하게 싸운 뒤의 패배는 쉽게 싸워 이긴 승리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농민들이 참고

있었으면 여전히 농민들을 괴롭혔을 봉건적 골레인 신분제도, 전근대적인 조세제도나 관리등용제도 등이 '갑오개혁'을 통해 농민군의 요구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중심방향은 일본의 요구와 지배층의 이익을 위하는데 맞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개혁에 필요한 재원도 농민들을 수탈하여 떼우려고 하였다. 따라서 반봉건 반외세 농민항쟁은 농민전쟁 뒤에도 계속되었다.

반봉건 투쟁이자 최대의 반외세투쟁이기도 했던 농민전쟁의 경험은 이후 활빈당 영학당을 걸쳐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투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었다.

농민전쟁이 일어난지 100년이 지난 지금 농민군을 추모하는 추모비가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 반면 전라도 운봉에는 남원의 농민군을 괴롭히던 운봉의 민보군 대장 박봉양의 공적비가 돌보는 사람없이 쓰러져 있고, 장흥 남산공원 구석에는 장령성이 함락될때 죽은 장흥부사 박헌양 순절비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으시시하게 서 있다.

100년전에 일어났던 농민전쟁이 지금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00년전 농민들이 자기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패배한 그 실패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몫인 것이다.

---

김용민 / 고려대 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는 동대학 사학과 박사과정수료중이다. 그리고 역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농민전쟁팀'에서 '1894년 농민전쟁'을 연구하고 있다.

인물탐구

##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 전봉준

장효문 / 고흥 녹동고 교사

전봉준의 자는 명숙, 호는 해몽이며 관은 천안이다. 1855년 철종 6년에 고창현 덕정면 당촌리에서 아버지 전창혁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천안 전씨 족보에는 이름이 영준, 봉준은 초명 또는 아명이며 녹두는 별호이다. 그의 집안은 전신 대제학이었으며 전상의 정묘호란때 순절하였으며, 전동홀은 숙종 때 훈련대장을 지냈고, 전몽성은 현감으로 의병대장 활동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전봉준의 집안은 대대로 무로서 그 혈통이 이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 몰락한 양반의 후예로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은 몰락양반으로 벼슬길에 들지 못하고 고부향교 장의(掌議)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림세가(士林世家)임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은 1895년 서당에 들어가 글공부를 하였는데 그는 한문에 능달하여 13세에는 백구시를 지었다.

하얀 모래밭에 마음껏 놀고 / 눈간이 하얀 날개  
 가날프고 다리는 홀로 청수로다 /  
 부슬부슬 찬비 올 때 홀로 꿈꾸고 / 때때로 고기잡  
 아 돌아가며 언덕에 논다 /  
 허다한 수석은 낮이 익었고 /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는지 이미 흰머리 되었도다 /  
 먹고 쪼는 것이 비록 번거로우나 과분한 것이 없으  
 니 / 강호의 어족들이 깊이 노심하지 말지어다.

전봉준은 몰락양반의 후예로 빈한한 가정 생  
 활 속에서 점점 장성하여 전주 최씨를 맞아 장  
 가를 들었다. 그의 혈족으로 아들 용규, 용현,  
 딸 옥례 그리고 성녀를 두었는데 (공초록에서  
 식구가 6명이라 함) 용규와 용현은 해방불명이  
 되었고 딸 옥례는 이영찬과 결혼하였고 성녀  
 또한 강씨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부  
 인(부인묘는 황토현에 있다고 함)과 사별한 후  
 두 아들과 그리고 딸과 함께 부인묘를 자주 찾  
 았다고 한다. 몇년 후 전봉준은 순창댁과 고부  
 댁이라는 여인과 동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전주성 전투를 눈 앞에 두고 원평에 주둔 당시  
 동학군을 도우러 온 기생 농월과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그의 체구는 5척 단  
 신이지만 얼굴빛은 희고 눈에서 빛이 나고 성  
 격은 과묵하였으며 세속의 이야기 보다는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때때로 먼데  
 서 손님이 찾아와 몇일씩 유하곤 하였다고 한  
 다. 특히 전봉준은 마을과 인근 부락에 경조사  
 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찾아가 축의와 조의를  
 표하곤 했던 예의바르고 효성이 또한 지극하  
 였다. 그는 풍수도 하고 단방약으로 병자를 고  
 친후에는 훈장노릇을 하였다. 이것이 그의 생  
 활수단이었다.

전봉준은 어른이 된 후 동학에 입도한 연대  
 는 1885년, 1888년, 1890년이라는 주장이 있으  
 며 손화중에 의하여 입도되었다는 설과 서장  
 옥의 부하 황하일에 의해 동학에 입도하였다

는 설로 엇갈리고 있다.

전봉준의 성장과정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온  
 나라에 부정부패로 만연되었고 정권싸움이 그  
 칠 날이 없었으며 벼슬아치와 양반들의 횡포  
 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농민들은 각종  
 세금에 살 수가 없었으며 주변의 국가인 일본  
 을 위시하여 청, 노, 미, 영, 불 등은 조선을 에  
 워싸고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삼남지방  
 은 질병과 가뭄 등으로 굶어죽는 이가 늘어나  
 고 그로 인하여 계속해서 농민들의 항거가 없  
 는 날이 없었다. 전봉준은 8세때 온 나라가 경  
 동하는 1862년의 삼남봉기가 보았고, 17세때  
 대원군에 의해 서원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 전  
 봉준은 궁핍한 생활 속에서 전답 2두락 뿐 조  
 반석죽으로 연명한 너무나 가난함 속에서 자  
 랐다.

#### 아버지 전창혁이 옥중에서 장삼

1892년~1893년 동학교인들의 교조신원운  
 동이 시작되었다. 삼례에 동학교인들이 집결  
 하였다. 보은에 2만의 교인들이 집결하고 금구  
 에도 집결하였다. 나라는 온통 동학교인들의  
 함성뿐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복합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학을 사악한 종  
 교로 몰아세우고, 흑세무민을 유발하는 종교  
 로 더욱 탄압을 하였다.

관리들의 탐학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 전라  
 도의 농민들은 더욱 참혹한 상태였다. 가호전,  
 수세, 백재징세, 이포징세 등으로 견딜 수 없던  
 고부·전주·익산 등의 농민들이 일시에 일어  
 났다. 고부의 16개면의 수백 동리 농민들이 일  
 어난 것이다. 그 중에 장두는 전창혁·김도삼  
 ·정일서 등 세사람이었다. 농민들은 이 세사  
 람을 대표로 하여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등소  
 하였으나 조병갑은 몽둥이질을 하여 전라감영  
 에 이수해 버렸다.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놈들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이 농민을 총동시켜 난을 일으킨 자들이라고 하여 증매질을 하였다. 이때 전봉준의 부친 전창혁은 옥중에서 장살되었다.

1893년 11월 전봉준은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구하기 위해 고부관아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조병갑은 1893년 11월 고부면 신중리 대회의 송대화 대접주 집에 동학교인 20명이 모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을 모의하기 위해 20명의 동지들이 모인 것이다. 전봉준과 동지들은 사발통문(사발모양)을 작성하였다.

이때 도인들은 선후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 죽산리 송두호 가에 도소를 정하고 매일 운집하여 차서를 결정하니 그 결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사
2. 근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사
3. 군수에 이유하여 인민을 침어한 탐리를 격정할 사
4.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향할 사

위와같이 결의가 되고 혁명모의를 하고 난 뒤 전봉준은 면밀하게 민심의 동향을 분석하며 혁명 거사일을 기다리다가 1894년 1월 10일 농민을 구하는 길로 뛰어 들었다. 전봉준은 9일 밤 태인 죽산 최경선의 집에서 동학 교인과 농부 장정 300명을 이끌고 마항장터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1천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있었다. 노약자 어린이들을 귀가토록 한 뒤 조병갑의 학정을 일일이 외치고 고부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고부성을 점령한 동학군은 조병갑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전봉준은 무기를 접수하고 형옥을 부수어 죄인들을 석방하고 관공 1천 4백석으로 군량을 충당하고 원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1894년 1월 17일 전봉준은 마항시장으로 주력부대를 옮겨 진을 치고 사방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영병이 쳐들어 온다는 말이 있고 지형지세가 좋지 않아 평소 병서를 탐독한 전봉준은 사면을 초계하고 군율을 엄정하게 관리하였다. 이때 정석진이 영병 50명을 이끌고 그곳에 내려와 농부로 가장하여 동학농민군 속으로 잠행하였으나 전봉준은 이들을 모두 색출하여 처형하였다. 1월 25일 전봉준은 백산성으로 진영을 옮겼다. 잠시 소강상태였다. 조병갑 후임으로 박원명 군수가 부임하여 원한의 근본을 찾아 하나 둘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안해사 이용태가 도착하여, 박원명을 위협한 뒤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자들의 색출을 위해 포졸들을 모두 마을에 풀어 살륙을 일삼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육처럼 엮고 재산을 약탈하였다. 그는 가옥을 불태우고 가축을 도륙한 뒤 밤이 되면 한백당에서 주색잡기에 날을 보냈다.

### '보국안민'이라는 네글자를 특서하여

전봉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3월 21일 백산성에 동도대장(東徒大壯)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그 깃폭에 '보국안민'이라는 네글자를 특서하였다. 증론에 의하면 대장은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영술장 최경선, 비서 송희옥 정백현으로 정한 뒤 3월 27일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을 밝힌 격문을 천하에 발하였다.

격문(檄文):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게 됨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요,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하는 관리들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코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들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들 밑에서 굴욕을 당하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시각으로 일어

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갑오 3월 27일 호남장의대장소 재백산-

백산에는 1만 4천여명의 동학군이 운집하였다. 전봉준은 군 기강을 위해 4대강령을 내걸고 군기를 엄하게 단속하였다. 첫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둘째, 충효를 다하고 재세안민하라. 셋째, 일본오랑캐를 축멸하고 성도를 깨끗이 하라. 넷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귀를 진멸하라.

이때 격문을 보고 달려온 동학농민군 군장 급으로는 34개 지방 50여명이었다. 고흥에서는 류희도, 송면호, 구기서 두령들이 3,000의 동학군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백산은 앉으면 죽산·서면·백산이 되었다. 4월 6일의 급보는 관군이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대는 5백을 이끌고 송봉수가 2대는 이재섭이 300명을 이끌고 3대는 보부상 별동부대였다. 4월 6일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780명의 관군과 보부상을 섬멸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의 대승이었다.

### 전주성에 무혈입성

전봉준은 4월 7일 정읍을 치고 4월 12일 무장, 4월 13일 영광, 무안, 나주 등을 들며 탐관오리를 처단하였다. 이때 초토사 홍계훈은 4월 4일 인천을 출발하여 4월 6일 군산에 도착 4월 7일 전주성에 들어 왔는데 출발시 800명의 관군이 전주성에서는 470명으로 줄어 들었다. 전봉준은 4월 22일 장성의 화룡촌 강가에 주둔해 있었다. 전주성의 공략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홍계훈은 4월 18일 전주를 출발, 19일 정읍, 20일 고창, 22일 영광에 유진해 있었다. 그러나 대관 이학승 부대는 장성 갈재를 넘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동학농민군과의 대화전이 벌어

지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동학농민군들은 장태를 이용하여 관군 100명을 죽이고 대관 이학승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그는 12개항을 발표하였다.

1. 행복한 자는 대접을 받는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굶주린 자는 먹인다. 7. 간활한 자는 없애 버린다. 8. 빈한한 자는 구해주라. 9. 불충한 자는 없애 버린다.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하라. 11. 병자에게는 약을 주라. 12. 불효자는 죽인다.

전봉준은 전주성으로 진격했다. 그는 전주로 향하면서 전봉준은 특히 효계충신이 살고 있는 10리 이내에서는 병영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4월 24일 장성, 25일 태인, 4월 26일 원평을 거쳐 4월 27일 전주성에 무혈입성하였다.

1894년 5월 1일 홍계훈은 전주성을 에워싸고 포격을 가하였다. 동학농민군과 대접전이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5월 2일 다시 접전이 시작되었다. 2차접전도 동학농민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전봉준은 용장 김순명, 동장사 이복용을 잃은 큰 손실을 당하였다. 이렇게 전라도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홍계훈은 정부에 외병을 요구하는 장계를 수차례 보내고 있었다. 전주성 함락 이후 민비 그리고 민영준 등은 임금을 움직여 증신 회의를 거쳐 청병차병의 공문을 청에 보내고, 5월 5일 섭사성이 910명을 몰고 아산만에 도착하였다. 일본 또한 청병차병 논의가 있을 때 친진조약의 위반을 구실로 오오도리가 군함을 몰고 들어오고 있었다. 일본은 5월 7일 420명의 육전대를 서울에 진주시켰다. 그후 6천명의 일군이 들어왔다. 같은 날 섭지초는 1천 5백명의 청군을 이끌고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전봉준은 왜병이 국내에 들어와 이제는 나

라가 망하는 구나 하는 생각에 홍계훈과 화약을 서둘렀다. 전주화약 성립으로 5월 7일 동학군은 전주성을 나오고 홍계훈은 들어가게 되었다.

### 나라가 위급함을 알고 재기포를 단행

전봉준은 전라도 53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자이전, 억울한 자 석방, 억울한 천자 속량 등 민주사회의 개혁을 물 흐르듯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천진조약, 제물포조약에 따라 공사관 기류민 보호의 명목으로 청군보다 10배가 넘는 군사를 출병시켜 1894년 6월 18일 조선정부는 청국과는 조약을 모두 파기하고 3일동안 여유를 줄 터이니 개혁을 서두르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일본은 전쟁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은 조선왕국

을 포위하고 고종을 연금하였으며 급기야 왕궁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예고없이 6월 25일 아산만에 정박중인 청군군함을 공격하여 1,000명을 수장시키고 6월 27일 성환의 청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쟁으로 청군은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전봉준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함을 느끼고 1894년 9월 재기포를 단행하였다. 전라도에서 10만의 병력이 삼례에 모였다. 북접에서 10만의 병력이 모여 들었다.

동학농민군은 논산에 모여 공주성을 쳐들어갔다. 그러나 4,000여명의 관군과 구르프등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군에게 계속 패하고 있었다. 무려 40여회의 대접전 속에서 진행된 우금치 전투는 죽은자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바다를 이루어 공주성의 주위는 불바다를 이루었다. 전봉준은 전주에 정예부대 5천을 북상시켜 마지막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땅을 치며 물

### 천민부대를 조직한 김개남 장군

김개남은 1853년에 출생하여 1894년 효수·처형되었다. 김개남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중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다. 전봉준이 혁명을 주도할 때 지장이었다면 김개남은 용장이었다.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개성이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손화중은 수많은 동학교인들을 혁명대열에 참여시킨 위인으로 활동하였고, 전봉준은 농민군을 이끌었다. 그러나 맹장 김개남은 노비, 백정, 승려, 장인, 재인들을 중심으로 한 천민부대를 조직해 이 부대의 대장이 된 것이다. 김개남의 본 이름은 김기범이었다. 학자들에 따라 金開男과 金介男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김개남(金開男)이 옳다(천도교 자료)

김기범은 꿈에 선몽을 얻어 “남조선을 개혁한다”는 뜻으로 개남으로 사용하였다. 김개남은 태인면 삼산리 지금실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있고 모험심이 매우

강하였다. 그는 학문을 익혀 이치에 눈을 일찍 떠 동학에 입도하였고, 신심이 두터워 최시형의 래방을 받을 수 있었다.

김개남은 장성하여 남원을 중심으로 한 김개남포를 형성하여 임실, 장수, 무주 등지를 관할하였다. 전봉준이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백산성의 기포시 김개남은 이 혁명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는 대장인 전봉준 다음으로 총관령이 되었다. 혁명 이전의 여러 종교집회에서 강경파로 활동하던 김개남은 동학농민혁명전에서도 추호의 양보와 회유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보다 더한 이에는 칼, 눈에는 총이었다. 황룡촌 전투와 전주성 전투가 끝나고 전주화약이 성사되었다. 그 이후 김개남은 지리산 언저리의 여러곳을 왕래하며 집강소 설치운명을 철저히 실행하였고, 이 실행과정에서 남원부사가 집강소 설치운명에 소극적이며 순수하게 응하지 않으므로 당장에 그의 목을 잘라 관문에 효시하였다.

러  
하  
학  
목  
들  
을  
는  
  
지  
산  
다  
산  
단  
봉

김  
조금  
곧바  
동학  
혁명  
만을  
을  
이  
이  
부대  
였다  
서  
부대  
봉준  
진한  
으로  
공주  
김개  
에  
동학

러날 수 밖에 없었다. 엄동설한에 군량이 부족하고 손발에는 동상이 들어 사기가 떨어진 동학농민군들은 더이상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목불인견이었다. 시체를 넘고 수만의 부상병들을 이끌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퇴로길에 올랐다. 아!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는구나. 그는 소리쳐 울었다.

### 삼산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군 해산

여산전투, 양산전투, 고산현전투, 청산전투, 지면촌전투, 청주전투, 증곡전투, 그리고 세성산전투, 논산전투, 황하대전투 모두 패전이었다. 1894년 11월 25일(양력 12월 21일) 태인의 삼산전투에서의 마지막 혈전을 끝으로 동학농민군은 후일을 약속하고 모두 해산하였다. 전봉준은 분통한 눈물을 삼키며 정읍의 입암산

김개남은 지방의 방백수령들이 집강소운영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칼을 들어 그들의 목을 곧바로 내려치는 성격이었다. 전봉준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군들을 불러모아 삼례에 10만의 혁명군들이 집결하였다. 남접에는 전봉준이 10만을 이끌고 북접에서는 손병희가 10만의 병력을 모아 여산·논산에서 합류하여 20만 대병력이 공주성 공격에 나섰다.

이때 김개남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고 김개남 부대라는 독립된 부대를 이끌고 전주에 유진하였다. 그는 10월이 되어 장수, 금산, 진잠 등지에서 청주 영병과 싸웠다. 이때 전봉준이 이끈 대부대는 공주성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최후의 대회전을 준비하였다. 전주에 유진한 김개남은 5만 정예부대를 이끌고 공주성으로 달려갔다. 김개남과 전봉준은 사력을 다해 공주성 전투를 감행하였다. 직접 선두에 서서 김개남은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공주성을 목전에 두고 대패하였다. 후퇴를 거듭하여 전봉준이 동학농민군을 해산한 뒤 김개남은 회문산의 깊

성으로 잠입하였다. 얼마동안 이곳에서 은신하던 전봉준은 부하 수명과 함께 11월 28일 순창 피노리(현재의 쌍치면)로 세정을 살피고 재기병을 탐색하기 위해 내려갔다. 옛날의 부하



은 산속에 숨어들어가 임병찬의 구원을 청하였다. 그러나 임병찬의 배신으로 김개남을 밀고 하였다. 그날은 전봉준의 피노리에서 잡히던 1984년 12월 2일 같은 날 김개남도 잡히는 몸이 되었다. 김개남은 전주로 끌려가 이도재의 심문을 받았다. 이도재는 정식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처형하였다(김개남의 손자인 김환옥은 초록바위에 누이고 돌로 찍어 죽었다고 주장함) 그는 전주 서교장에서 효수된 뒤 효시되었다. 김개남의 시신 또한 수습할 수 없었다.

현재 태안면 삼산면 지금실에는 동학농민군을 훈련시킨 훈련장이 있고 전봉준의 외손녀의 무덤이 안산에 있다. 김개남과 전봉준이 혁명을 위해 만났던 김개남의 집터가 남아있다. 김개남의 손자 김환옥씨의 한맺힌 눈물바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전주 덕진고원 한곳에 “개남아 개남아 김개남아”라 쓰인 돌비가 하나 낮게 서 있다.

## 황토현에서 우금치까지

었던 김경천을 찾아 들었다. 이때 전국에는 전봉준에게 1등 군수벼슬과 천냥의 현상금을 걸었다. 전일의 부하였던 김경천은 군수벼슬에 눈이 멀어 전봉준을 밀고하고 만다. 그날 밤 전봉준은 민정들에게 포위됨을 알고 전보총을 들고 담을 뛰어넘다가 애석하게 잡히는 몸이 되었다. 그 다음날은 용장 김개남이 태인의 강화병전에게 체포되었다. 김개남은 서울로 압송되지 않고 관군에 의해 효수형에 처해진다.

전봉준은 삼엄한 경계속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5차례에 걸친 심문을 받았다.

1895년, 개국 504년 3월 29일 전봉준의 형 집행자가 마지막 가족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이르자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인 진데, 종로 네거리에서 나의 목을 베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킁킁한 적굴에서 암연히 죽이느냐?”

### 동학군과 농민군을 하나로 결집시킨 손화중장군

손화중은 1861년에 태어나 1895년 전봉준과 함께 동학괴수관 죄목으로 효수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3대 지도자의 한 분이다. 그는 정주의 삼산면 음성마을(지금의 정주시 상평동)에 살았다. 손화중은 9천 장신으로 장대하였고 성품이 온후하였다. 그의 가정은 부유한 편이었으며, “일찍 동학에 입도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순행하였는데 머무는 곳마다 그를 섬기는 여인이 많았고 그의 혈손 또한 많았다 한다”(손자 손홍렬씨의 증언) 그의 성명은 1892년 선운사 뒤 도솔암의 석불에 박힌 비결사건으로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손화중에 대한 유년의 성장과정과 자세한 품성은 미비한 자료 때문에 애석하게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몇몇 학자들의 짧은 기록과 허공을 떠도는 구

고 준절히 꾸짖었다. 전봉준은 그때 한편의 유시를 남겼는데,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내뿔과 같더니 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더냐 나라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전봉준은 적굴에서 효수되어 종로 네거리에 효시되었다.

전봉준과 함께 손화중, 김덕명, 성두환, 최영역 등도 모두 사형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이들이 사형된 뒤 관군과 일군은 혁명에 가담한 사람과 그 가족을 살육하기 시작하였다. 학설에 따르면 50만이 죽었다고 한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강물에 바다에 스스로 투신 절명하였다.

전, 손화중의 손자인 손홍렬(정주시 농협조합장)씨의 금쪽같은 구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손화중은 동학을 포교하면서 고부, 정읍, 남평, 광주, 무장, 담양, 영광, 부안, 장서 등지의 교인들을 지도하는 동학교도의 대 접주였다.

1894년 전봉준과 최경선들은 고부봉기를 시작하기 전 고부농민으로는 혁명의 쟁취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무장에 있던 손화중을 만나 혁명대업의 동참을 요구하였다. 손화중은 상당히 신중론을 주장하였으니 끝내 자신의 휘하에 있던 교인들을 혁명에 참여시키고 자신 또한 혁명의 횃불이 되어 선두에 선 지휘자가 되었다.

손화중포로 고장의 두령 오하영, 오시영, 임형로, 임천서 등이 1천 5백여명을 거느리고 고부성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백산성기포를 맞아 전봉준, 김개남과 함께 호남창의소를 설치하여 창의문을 발하는 말미에 손화중의 성명이 기록된 자료로 보아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189  
점은  
한일  
을 주  
부대  
병을  
많은  
여하  
의 후

참고

申福龍  
洪 又  
吳知泳  
「전라  
金義壽  
이이호

의 불  
손화  
렬씨의  
의 불  
충당  
들을  
로서  
참토  
는 그  
곳에  
손화  
키는  
을 형  
에 권  
동배  
한 작  
손화  
창, 그  
담하  
우금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고 일본의 강점은 더욱 강화되어 1905년 보호조약,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다. 그 이후 1919년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대장으로 활약한 손병희 선생이다. 특히 의병을 발하하여 일본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였던 이들이 많았고, 이들은 모두 동학군의 후손들이었다.

**참고문헌 및 구전자료**

申福龍 著 『東學黨研究』 探求堂 /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  
 洪 又 著 『東學文明』 一湖閣 / 「甲午略歷」 / 「淳昌郡誌」  
 吳知泳 著 『東學史』 博英社 / 「千道教月報」 / 「전라도 고부민요기」  
 金義壽 著 『全球準傳記』 正音社 / 張奉善 / 「全球準實記」  
 이이화 『인물한국사』 『동학인물열전 57, 한겨레신문』

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손화중의 위력을 대만하였다. 손자인 손홍렬씨의 증언에 따르면 1, 2차의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이나라 산하를 뒤흔들 때 군량미의 충당에 힘썼다. 또한 일정한 지역의 동학교인들을 관할하는 권한이 있던 손화중은 대접주로서 입장을 짚어 혁명군을 혁명의 대업에 동참토록 동원을 명하거나 허락하였다(손홍렬씨는 그 인장이 얼마전까지 있었으나 집안 어느 곳에 박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손화중은 동학군과 농민군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공로자였다.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동학교의 조직망을 손에 쥔 손화중은 동학농민군을 기동성있게 이동배치 시키고 민심의 동향분석과 함께 면밀한 작전을 수립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손화중은 백산성 기포를 시작으로 무장, 고창, 부안등지와 활용촌전투, 전주성전투에 가담하였다. 그는 전봉준이 여산, 논산을 거쳐 우금치에서 대혈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광주

손홍렬 『손화중의 손자』 김환옥 『김개남의 손자』  
 -구전증언자료

장효문 / 전남 고흥출신이고 '인간 전봉준'과 '갑오 농민혁명'등 민족사를 문학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고흥녹동고에 재직중이다.



에 유진하여 후방방어는 물론 군수전과 군량미 조달에 주력하였다.

전봉준이 일군의 화력과 관군의 조직적인 군세에 밀려 공주성전투에서 패배하고 분루를 흘리며 삼산성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군을 해산한 뒤 장성의 입암산성에 잠입했을 때 손화중은 흥덕현 안현리 채실에 숨어 들어가 채실지기인 이봉우에게 자신을 고발하여 현상금을 타라고 하였다. 손화중은 스스로 잡히는 몸이 되었다. 손화중은 관군에게 잡혀 나주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로 압송되었다. 여러차례의 재판을 거쳐 1895년 3월 29일 사형이 확정·집행되었다. 손화중의 시신은 거두지 못하였다. 그의 손자인 손홍렬씨가 살고 있는 뒷산에 허충, 빈무덤으로 혁명의 붉은 바람인 채로 놓여 있다.

##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 일어서는 자의 후손으로

지 지 성 / 사학 1

겨울을 재촉함인지 가는 가을을 아쉬워함인지 비는 길을 나서려는 발걸음과는 무관하게 내리고 있다. 그래도 기상조건에 얽매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9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것 같아서 일찍 집을 나섰는데 웬걸 예정보다 30분이나 빨리 도착하였다. 서울에 있는 역사문제연구소 연구팀이 광주 전남 지역 역사기행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아 얼떨결에 따라나섰다. 하지만 사학인으로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성과물을 찾고자는 내 개인적 욕심도 한몫 거들었다.

### 광주·전남 동학기행에 참여

같이 동행하기로 했던 선배들과 간단히 상견례를 마치고 서울팀과 만나기로 한 나주를 향해 떠났다. 우리 과에서도 나주가 농민군들이 애간장을 녹였던 지역(전라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나중에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초토영이 설치되었다)이었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지난 여름, 나주

에 들렀을때는 갑오년 농민군에 대한 감회도 지식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고가들이 농민군들의 한이 서린 장소였음을 생각하니 옛 건물들, 거리의 사람들까지도 다르게 보였다. 그런데 나주 군청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약간의 조바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 참후에 약속한 사람들을 만났다. 창밖은 날씨탓으로 잘 보이지 않고 게다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서 차안에서 줄곧 졸았다. 농민군들은 피와 눈물을 뿌리고 지나갔을 길을 차안에서 편히 졸면서 지나간 것이다. 너무 죄송스런 느낌이 든다.

광주 광산구 서장터(농민군이 황룡강을 건너 나주로 진격하기 위해 머물렀던 나룻터)에서 역문연팀과 결합을 하게 되었다. 50여명 남짓되는 일행과 처음간 곳은 점심을 먹기 위한 음식점.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일순간 풀려버리는 느낌이었다. 반찬으로 나온 홍어찜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을 별찬으로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송산정사(송산 이병수를 모시는사당)였다. 이곳 외에도 장흥에서 영희

은  
총  
기  
까  
울  
중  
다.  
한  
당  
사  
무  
손  
유  
를  
집  
인  
는  
1  
다  
는  
들  
과  
상  
남  
조  
상

당이런 사당이 있는데 농민군의 손에 죽은 장흥부사 박헌양과 수성군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과에서 여러번 역사기행이나 답사를 왔었지만 그때와는 감회가 사뭇 달랐다.

우리는 이후 나주, 영암 등을 거쳐서 장흥에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답사는 장흥 중심의 답사이고 이방언 장군의 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흥과 이방언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현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사경 장군-용반점주 이방언장군과 함께 장흥에서 집강소 활동을 펼쳤던 농민군 지도자에 대하여 많은 준비가 안된 탓으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이방언 장군의 증손자를 만나

장흥에 이르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계각층에 있는 -TV프로 연출가, 신문기자, 기록영화제작자, 학생, 시민-분들이 느끼는 그리고 농민전쟁을 대하는 모습들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장군의 증손자뻘 되는 분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이분에게서 우리는 이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성듣성 듣게 되었다. 그 당시 재력있고 양반이셨던 증조부님이 무슨 이유로 농민군에 가담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 때문에 풍지박살난 집안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데모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하고 같이 싸우셨던 조상님을 모시는 분께서 오히려 자랑스런 조상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이 안

타까웠다.

이튿날 우리는 장흥에서 전적지의 기념탑을 보았다. 고은 선생님의 시구가 적혀있는 이 탑은 웅장(?)하기도 할 뿐더러 민간단체에서 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깊은 구조물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이 탑보다는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이 더 와 닿았다. 지금은 도로가 나있고 논밭도 정리되어 그날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그곳을 바라보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외세 앞에 쓰러져 갔던 그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들었다. 누구든지 이 단순한 구조물보다는 그 앞에 펼쳐진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되었다.

그 곳을 지나 장흥읍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군민공원에서 역사기행 책임자인 우윤선생님으로부터 장흥지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전투를 준비했던 곳, 지휘하던 곳, 적들의 위치와 당시 상황이 지형지물과 어울려서 쉽게 이해되었다. 현대 아쉬운 것은 전적지 답사가 지나는 한계일지는 몰라도 그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들속에서 그날의 자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장흥에서 화순을 거쳐 광주 5·18묘역 참배를 하였다. 이곳 망월동묘역 참배를 끝으로 우리는 일정을 마쳤고 그분들은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중간에 결합한 우리 세명은 앓아 각자의 삶에 충실하기로 말없는 각오를 했다. 비록 1박2일 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불의에 맞서 일어설 줄 아는 농민군의 후예임을 느낄 수 있는 또한번의 좋은 기회였다.

## 갑오농민군 지도자 후손을 찾아서

# 죄인으로 살아온 100년

리 상호 / 화가

울음이 인다. 함성이 인다.

보아라, 피흘리며 죽어간 녹두장군의 아들들이 자라난다. 왜놈의 바람에 입술 짓이기며 우리들 살로 자라난다. 우리들의 피로 솟아난다. 손에 손에 까칠한 분노의 창을 들고 와아- 와아- 피거품 마구 내뿜으며, 식민의 땅거죽을 벗기며 수천의 깃발로 일어선다. 수만톨의 쌀로 일어선다.

보아라, 그리고 들어라, 갑오년에 봉건적 차별대우와 사회적 질주를 타파해 내는 농민군, 그 후예들의 서슬 푸른 눈빛을.

### 장태장군 이방언의 씨들

먼저 농민전쟁의 최후의 항전인 장흥의 석대들 전투에서 3만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군, 일본군, 민보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토벌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룬 이방언장군의 후손인 이종찬씨(56세, 장흥군 용산면 인암리 748-1)를 역사문제연구소의 전남지역 농민전쟁 답사과정에서 쉽게 만나 보았다.

이방언(李芳彦)장군. 남면 목촌 출신의 대접주로 1893년 보은취회에 참가 후 갑오년 4월 장성 황룡강 전투에 장태를 사 용함으로써 농민군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알려졌으며 12월15일 석대들 전투에서 패한 후 은신 중 12월25일 토벌군에게 체포당하였다. 서울로 압송되어 전봉준장군과 재판을 받았으나 대원군의 도움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하며 그뒤 보성 회천면에 숨어 있다 전라감사 이도재의 체포령으로 아들 聖浩와 함께 다시 체포되어 1895년 4월25일 장흥 將臺에서 외아들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한다.

※ 참고문헌: 오지영의 『동학사』 황현의 『오하기문』

“그때 당시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사람은 거의가 빈농·천민이었지만 유일하게 우리 집안은 부농이었고 장흥유생 김한섭과 동문수학한 사이로 학자집안이었지. 그 학문적 결과가 갑오년 전에 동학에 들었다더군” 이방언장군은 동학이 그 당시 농민의 처지와 입장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공감하여 1891년 동학에 입교한 기록과 만날 수 있는 이야기부터

말문을 열었다.

“증조부께서는 갑오년 전에 장흥남면 일대 세금감면을 위해 장흥부사 이용태에게 진정서를 올리고 탄원해도 안되자 전라감사를 찾아간 후에야 세금감면이 이뤄졌다고 들었네. 그후로 장흥 일대에서 농민들의 신망을 일찌기 받았었고 그래서 농민군을 자연스럽게 규합할 수 있었다 보네. 그리고 집안자랑 같지만 전봉

에서 듣고 싶었다.

“그때 당시 농민군을 탄압했던 관군의 자손은 일제 때 친일하여 그 아들들이 현재까지 정부 관직에 앉아 있고 농민군의 후손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며 땅이나 붙여 묵고 사는 형편이라네. 일제때는 장흥이 저항의식이 강한 땅이라 여긴 일본군들은 인근지역에도 없는 헌병대까지 벽사역에 설치했다네. 그래서인지 유일



음반집 농민군지도자 이사경장군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는 증손 이정태씨(45)

준장군과 함께 장태장군, 남도장군, 관산장군이라는 별호를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였다네.”

이방언장군을 장태장군이라 불리우게 된것은 닭장태를 변형하여 제작해 매끄러운 대나무 껍질을 이용해 전투시 총알을 피하는 방탄용 무기를 고안해 내었다 해서 붙여진 것이고, 남쪽에서 이름을 떨쳤다고 남도장군, 장흥군 관산읍의 옛명칭 그대로 관산장군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알려진다. 3가지 별호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 비춰보아 그만큼 동학교도나 농민군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며 갑오년 농민전쟁 실패후 전개된 장흥지역의 역사를 후손의 입장

하게 3·1운동 때도 독립만세 한번 못부르고 숨죽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장흥땅이라네.”

일제때 장흥부를 수성하다 농민군에 의해 죽음을 당한 박헌양 부사의 가까운 인척인 박모씨가 일제강점시 독립운동을 잡아들이는 일본형사를 지내며 수성군의 업적을 기리는 영회당의 대표를 했던 기록이 있다며 말해준 전남사회문제연구소 이재의 소장께 들은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었다.

우리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친일파 후손이 독립유공자를 포상하는 거꾸로 선 역사가 언제 민족정기가 살아있는 굳건

한 반석위에 오를까. 분한 마음을 누르고 요즘 생활에 대해 물었다.

“농민전쟁 패배로 조부님과 아버님이 처형당하신 후 어머님과 동생들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죽 해왔다네. 힘겨운 세월이었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되는 한 순간이 있었네... 그렇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추진위원 후손대표로 활동하면서 장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었네. 지금은 평통자문위원 역할을 그만두고 동학혁명 후손찾는 일과 농사만 짓고 있네...”

요즈음 같이 민족주체의 뿌리가 혼란스럽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등불이 희미해져가는 때 묵묵히 자신의 역사의 설자리만 지키고 계셔도 앞서 가신 애국 선열과 후손에게 역사의 힘으로 남을텐데...

### 이사경 후손의 아름다운 후손을 바라보며

이사경 대접주 후손 이일환(70,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538번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을회관에서 아들과 이야기 해보라 해서 저녁 7시경 마을회관에 들렀다. 을 추곡수매를 배정받기 위해 토지면적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정태(이사경의 증손자 45)가 반기며 잠시 시간을 내 주셨다.

이사경(李仕京), 장흥 龍溪 瓦里(지와물)출신의 대접주로 일찌기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를 지낸 부친 活人의 뒤를 이어 대접주가 되었다. 갑오 6월경 그의 근거지인 지와물(현재의 부산면 용반리 일대를 말함) 인근의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 활동을 벌였으며 갑오

년 12월 장흥·강진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하였다. 1894년 장흥 석대들 전투에서 패한 뒤 용반리 기역산에 은신하였다가 이듬해 1월 15일에 체포되어 장흥 벽사역에서 처형당하였다(황현 『오하기문』, 『동학란 기록』)

“仕자(字)京자 어른이 나의 증조부이신데 그 어른의 부친이 젊었을때 말을 타고 다니며 동학포교를 하셨다 들었네. 그 이유로 이 사경 어른은 쉽게 동학을 받아들인것 같고 또한 마을의 천석군으로 보(洑)를 막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동원 할 정도로 세력이 젊었다네”

이사경 부친의 휘하 농민군들이 이사경의 용맹하고 넉넉한 인품을 보고 접주로 추대해 내림접주가 되었다 한다. 이어서 갑오년 12월 15일 석대들 전투에서 패한 후의 마을 이야기는 참으로 끔찍했다.

“이 마을에는 음력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제삿날이 같은 집안이 30여가구가 넘고 날짜를 숙여 호적에 올린 사람을 포함하면 더 많다네. 동학에 가담한 사람은 후손까지 3족을 멸하기 때문이었네”

몇년째 농사일로 흠으로 구워낸 듯한 갈색의 양손을 힘껏 누르며 뼈마디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이사경 접주의 죽음은 더더욱 끔찍했다.

“증조부께서는 석대들 전투에서 패한 후 나주로 피신하는 길에 용반리에 돌아와 기역산 바위틈에 숨어 있는데, 마을 사람의 밀고로 선달 27일 붙잡혔다고 들었네. 관군들은 증조부님을 논두렁에다 세워놓고 벼짚으로 씌워 이를 후 불태워 죽였다네. 여러사람이 그렇게 죽었던 모양이다. 그후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시커멓게 탄 뺨뺨해진 시신을 찾아내 고부

간  
파  
을  
의  
우  
속  
통  
터  
살  
데  
도  
까  
안  
하  
환  
었  
계  
러  
집  
번  
을  
주  
의  
버  
처  
에  
며  
인  
직  
로  
운  
되

간에 번갈아 머리에 이고 와서 기억산에 파묻었다고 하네...”

100여년전 무참히 학살된 남편의 시신을 머리에 이고 황톳길을 넘어오는 이땅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처절한 우리의 근현대 역사(일제, 4·3, 5·18...) 속에서 무수히 발견된 모습일게다.

역사의 뒀안길에서 맞이할 인간의 고통이 너무 무겁게만 다가온다.

“증조부님이 참살당하신 뒤 관으로부터 재산을 다 빼앗겨 불고 집터 하나로 살다 일제하에서도 계속 탄압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방랑벽이 있어서인지 도망가신건지 모르지만 만주일대·일본까지 돌아다니셨다고 하고 아버님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반평생을 머슴살이를 하셨다네.”

후시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호기심으로 물었으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며 벽시계와 마을회관에 모인 동네사람들을 둘러본다. 그 뒷날 이사경 접주가 농민군을 집결시키고 집강소활동을 벌였다는 자라번지들이 바라보이는 기억산(驥驛山)을 올랐다. 비석하나 없이 버려진 이사경 접주의 묘소에 참배한 후 이정태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신다. 어릴때 아버님이 머슴살이 할 정도의 살림에 남들처럼 공부할 여건이 못되어 국민학교밖에 못나와 부산 등지의 공단을 돌아다니며 노동자생활을 죽 해오다 증동(바레인)에 다녀온 뒤 86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년부터 마을이장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휴과 함께 살겠노라며 새벽의 산기운처럼 강한 어조로 말한다.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게! 지금 농촌은 자신의 고향으

로 돌아와 이 땅을 일궈내고 지켜내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네! 자네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그뿐일세”

설명하기 어려운 감사와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을 만난 기쁨을 간직하며 안개 자욱한 기억산을 내려와 이일환어른께 인사드리고 갈려고 집에 들렀다. 함께 조반을 든 후 이정태씨는 이사경접주가 썼던 유품으로 남아있는 몇 권의 책을 보여 주신다. 『병인기문』, 『맹자』, 『통감』 등 열두권 정도 되었다. 선친께서 보셨던 이런 책들이 자료적 가치가 있다면 동학혁명 의 역사와 이사경어른의 업적이 올바르게 평가되었으면 한다면 배운해 주신다. 그동안 한마디도 안하신 이일환씨는 인사를 끝내고 다시 마루에 걸터앉아 갑오년 인고의 세월을 아들에게 맡긴 듯 들뜬 판에 버려진 벼이삭을 무심히 솟아내고만 계셨다.

### 손가락 발가락에 열개씩 대못 찔려간 김개남장군의 피붙이

김개남장군(1853~1894)은 태인 산의 면 원정마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돼지서리 할 정도로 통이 컸으며 병서보다 육도삼략같은 병서공부에 열중했다 한다. 키는 작고 가늘었지만 의협심이 강해 지도자의 기질이 몸에 배인 사람으로 알려진다. 1894년 농민전쟁 시작할 때부터 백산기포·황토현전투·황룡강전투와 전주성 입성 등에서 전봉준과 맞먹는 위세를 떨치며 중심적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남원의 근거지로 금산·임실·순창 등 전라좌도를 장악했고 전주화약에서 보듯이 홍계훈과의 화약을 반대하고 서

을입성을 요구하며 가장 비타협적이고 강경노선을 취했던 김개남은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3대장군으로 통한다. 출신성분과 달리 빈농·노비 등 천민을 주축으로 농민군을 조직, 가장 치열하게 봉건모순척결과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하는 반제운동을 벌였다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김개남장군이 청주싸움에 패하고 전주 북문에서 판결도 없이 처형당한 뒤 농민전쟁기간 토반과 부호 등 살육당한 후손들에 의해 배를 갈라 간(肝)을 꺼내보니 보통사람보다 두배나 더 컸고 그 간을 씹기까지 했다고 전해온 이야기와, 전봉준장군과 공주전투에 합류하지 않고 참서의 내용으로 49일을 남원에 머물며 가졌음직한 한 혁명가의 권력욕과 그 최후를 상상하며 가슴저리는 아픔으로 손자 김환옥(76. 정읍군 산외면 동곡리)할아버지를 바라본다. 이번까지 세번째 뵙지만 고집스럽고 어린아이같은 순박함은 여전한 것 같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답사자들의 질문이 몸에 배인 듯 관광안내자의 소개처럼 질서있고 유창했다. 그러나 동학후손으로써 처절하게 살아온 세월을 고통없이 이야기 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할아버지가 잡혀갈 때 손가락 발가락에 열개씩 대못을 찔러가지고 끌고 갔어! 발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간단디 열개를 대못질 해놓았으니 가졌어.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대가 쎄서 갖고 서울로 가서 재판도 받기전에 사형시켜 부러져”

김개남장군은 청주병영의 공격을 실패로 끝내고 정읍군 산외면 종송리에 사는 매부집에 숨어 있다가 옛친구 임병찬의 밀고로 1894년 12월 1일 관군에게 체포

당하였다. 그후 전주감영으로 압송되어 12월 3일 전주 서교장에서 즉결처분 당하였다. 그 배경에는 둔취해 있는 김개남장군의 부하들에게 빼앗길 우려로 대원군과의 밀지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정을 숨기려했기 때문이라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풍지박산되어 모두 도망다녔제. 우리 할머니가 산에다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내리6끼를 굶어 가며 열매도 따 먹으며 살았구먼, 나를 할머니 무릎에 얹혀놓고 말씀하신걸 죄다 기억하제”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역적으로 몰려 어디가서 도강김씨란 말은 못하고 할머니가 박씨로 성을 바꾸고 몇십년을 산에서 살았다며 긴 한숨을 내쉬다. 그렇게 숨어지내면서 집안에 화를 입을 물건이라며 김개남장군이 보았던 수많은 책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웠다는 아쉬움과 전봉준장군보다 평가절하된 지금의 김개남장군에 대한 불만들을 말씀하신다. 이때 김개남 장군의 증손자인 김상기(46세)씨가 들어와 반기신다. 요즘 농사짓기 힘들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나는 일을 안하면 아파 불고 일을 해야 몸이 풀린다네, 그리고 내가 농사짓는 일을 안하면 우리집은 쓰러져 부네. 논 몇마지기 지은 걸로는 식량이나 대고 동네에 경운기 부린돈과 담배재배로 돈을 조금씩 벌지만, 자식들 교육비 내고 하면 힘들다네”

김상기씨는 산외면 동곡리에서 남자로는 60먹은 노인들 몇분 빼고 가장 젊은사람이라며, 젊은사람 없는 농촌을 안타까워한다.

할아버지가 빨갭게 익은 감을 내오시며 나가신다. 김상기씨는 오는 손님들에

게 안해 본 소리까지 한다며 농협빛이 2800만원으로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데 값을 일이 걱정이라며 한숨을 쉰다. 피곤하게 보여 간단히 한두가지만 물었다. 내년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인데 기념사업회나 관계자들에게 후손으로써 당부할게 있다면 무엇이나고 물었을때 간단히

“목을 찾아오는 일이여! 후손에 대한 보상이나 복권회복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일본에 있는 머리만 남은 유골을 찾아오는 것이여”

그때 당시 효수된 김개남장군의 머리를 일본군이 본국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 젊은 눈빛으로 이 시대를 쏘아보자

내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아 역사의 올바른 계승과 기념적 복원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반봉건·반외세의 가치를 내걸고 피흘려 싸웠을때 지금 이 시기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시대모순과 그 과제해결에 힘을 얻는 역사인식이 필요할 때이며 그러한 노력이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0년 전에 외쳤던 척양척왜(斥洋斥倭)가 지금도 절실한 문제라 느끼며 동학농민전쟁의 혁명성이 항일의병투쟁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이어져 가깝게는 80년 광주항쟁으로 연결되어진 민족자주사상을 관철·강화시켜 내야 된다고 믿으며 그동안 짧았지만 갑오년 농민군 후손들을 찾아보며 역사의 술한 과제만 듬뿍 받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어린시절에 배운 중학교 국어책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며 글을 맺을까 한다. 한쪽눈이 없는 어



머니의 얼굴을 양쪽눈이 있게끔 그려달라는 사람에게 초상화 부탁을 받은 어느 화가의 말이라 기억하는데 “한쪽눈이 없는 어머니가 진실된 참모습의 어머니시네. 왜 숨기거나 미화하려 드는가? 평생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한눈으로 자네를 길러주시고 사랑하셨네...”

우리의 역사가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해도 그대로 껴안고 사랑하자! 사랑하되 지금 무력하고 무감해진 비판의 화살시위를 움켜잡고 기다리며 젊은 눈빛으로 이 시대를 쏘아보자고

리상호 / 조선대학교 회화와 졸업하였다. 87년 8·15해방대동제 작품작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세살이여' 그림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현재 광주민중민족미술운동연합 산하 대동그림연구소 회원이다.